



엑스포 준비되어 있소이다.

BUSAN is good for the EXPO.

“Amazing BUSAN!”

2030세계박람회 유치에 위한 우리의 노력과 열정은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BIE 실사단은 “부산은 모든것을 갖춘 도시”라며 최고의 감동과 찬사를 보냈습니다.
오는 11월, 개최 도시가 결정되는 마지막 순간까지 위대한 부산시민과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2023.4.2~7

BIE 실사단 방문 완료
(인프라 및 유치 열기 등 평가)

2023.6

국제박람회기구(BIE)
4차 경쟁 P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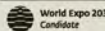
2023.11

개회국 선정 투표
(171개 회원국 비밀투표)

유치 성공 시, 2030년 5월
2030부산세계박람회 개최
61조원 경제 효과
50만명 일자리 창출
3,480만명 방문 예상



World EXPO 2030
BUSAN, KOREA



World Expo 2030
Candidate

부산체육

2023. 09 Vol. 58

부산광역시체육회 매거진

부산체육

부산광역시체육회 매거진
Busan Sports Council Magazine

Vol. **58**
2023. 09



부산체육인
부산광역시체육회
김문석 부회장

이슈 & 포커스
제34회 부산시민체육대축전
2022 항저우아시아경기대회

스포츠 히어로
부산환경공단 세팍타크로 여자팀

부산광역시체육회

CONTENTS

부산체육

부산광역시체육회 매거진
Busan Sports Council Magazine

2023. 09 Vol. 58



발행일 2023년 9월 15일(월간, 비매품, 통권 제58호)
발행인 부산광역시체육회 회장 장인화
편집인 신현기
편집·취재 정종욱, 문찬식, 김성무, 하나근, 김도희
발행처 부산광역시체육회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직로 77(T. 051-500-7900)
기획·제작 효민디앤피



인스타그램에서도
부산광역시체육회 소식을 만날 수 있습니다.

체

체육 발전

04
부산체육인
부산광역시체육회
김운석 부회장

08
영광의 인물
부산광역시배드민턴협회
조원규 고문

12
부산체육의 미래
부산영상예술고등학교 사격부
김주리 선수

16
이슈 & 포커스
- 제34회 부산시민체육대축전
- 2022 항저우아시아경기대회



인

인화 소통

20
스포츠 히어로
부산환경공단 세팍타크로 여자팀

24
구·군체육회를 가다
부산광역시금정구체육회

26
달려라 부산체육
자전거동호회 일사모팀

30
부산스포츠 기자단
- 부산어린이농구교실
- 여성특화체육교실

지

지식 나눔

34
스포츠 PLUS +
고난도 기술 속 우아함을 담다
체조

38
스포츠 Job
과학적 분석을 통해 데이터를 도출하다
스포츠 기록분석연구원

40
건강 라이프
가을철 야외활동 시 조심해야 할
감염성 발열질환, 쯔쯔가무시병

42
스포츠 정보 알림
스포츠강좌이용권

업

업글 소식

46
문화 공간
책 “인생에서 8가지 일에만 집중하라”

48
BSC 뉴스
- 부산광역시체육회, 부산체육고등학교 격려 방문
- 2023년 부산씨름왕선발대회 개최

50
회원단체 소식

54
센터 Info
- 부산국민체육센터
- 북구국민체육센터
- 강서구국민체육센터
- 영도국민체육센터
- 부산실내빙상장
- 부산종합실내테니스장

57
종목·공공스포츠클럽 소식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풀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을 만나면 아이에게 축구를 시키라고 꼭 강조하죠. 체력 증진은 기본이고, 단체종목이기에 공격과 수비할 때 함께 움직이다 보면 단합력과 사회성이 길러집니다.

부산체육의 든든한 숨은 조력자

부산광역시체육회 부회장,
(주)덕재건설 대표이사 김운석

해운대를 거점으로 25년 동안 건설업을 운영하며 부산체육을 비롯해 대내외적으로 다양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김운석 부회장. 화려한 행보를 걷고 있지만, 자신이 드러나는 것보다 지금처럼 어려운 사람들을 뒤에서 묵묵하게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을 전했다.

인생의 버팀목이 되어준 운동

“전국축구대회에서 40대 시합에 출전했어요. 제가 50대인데 말입니다. 다들 한 게임 뛰고 숨을 거칠게 몰아실 때 저만 세 게임을 뛰었죠. 체격이 커 보여도 잘 뛰니다. (웃음)”

김운석 부회장을 처음 본 사람이라면, 그의 탄탄한 체격에 압도당할 것이다. 어릴 적부터 축구, 합기도, 스킨스쿠버 등 다양한 스포츠를 섭렵할 정도로 운동을 즐겼던 그는 웬만한 청춘보다 에너지가 넘쳐 보인다.

“지금도 공을 차긴 하지만, 과격한 운동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제가 특수부대를 나왔는데, 5년간 복무하며 하루 8시간씩 운동하다 보니 그 후유증이 있더라고요.”

뜻밖의 이야기를 통해 김운석 부회장의 과거사를 들을 수 있었다. 어린 시절 축구선수를 꿈꿨을 정도로 운동을 좋아했지만, 어려운 가정 형편으

로 운동에 대한 꿈을 접고 대학에 다니던 중 모병관을 통해 특수부대에 징집되었다고 한다.

“특수부대에서 군 복무를 하다 보니 사회와 격리된 채 극한 훈련을 받았었죠. 그렇게 5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전역을 했는데, 도무지 사회 적응이 되지 않더군요.”

훈련 당시 낮에는 땅을 판 구덩이 속에서 잠이 들고, 밤에는 불빛 하나 없는 가운데 오로지 동물적인 감각으로 산길을 타야 했다. 이를 위해 생사를 넘나드는 훈련을 견디며 청춘을 바쳤던 만큼 사회에 돌아왔을 때 누구보다 힘들었을 터. 그때 김운석 부회장 인생의 버팀목이 되어준 것은 바로 운동이었다.

“과격한 운동을 했었는데, 그렇게 몸을 피곤하게 만들어야지만 잠이 들 수 있었어요. 이후 대학에 복학하고 합기도 도장을 운영하며 아이들을 가르치곤 했습니다.”



훗날 것처럼 군 복무를 했던 자들을 예우하는 법안이 통과되면서 국가유공자로 인정받게 된 김운석 부회장. 그는 국가유공자로서 대우받는 만큼 그 이상을 국가에 환원해야 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요트경기장을 비롯한 해운대 인근의 바다 정화 작업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온 것도 모두 국가에 대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 김운석 부회장은 자신처럼 유공자로 대우받아야 하는 분들이 소외된 경우가 많으며, 6.25 참전용사나 상이군경회 등을 통해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목표라고 한다. 우리나라를 위해 생을 걸었던 그는 누구보다 대한민국이 건강한 나라가 되었으면 한다는 간절한 마음을 내비쳤다.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운동

김운석 부회장은 건강한 대한민국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을 지켜볼 때면 몇 가지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고. 한 예로 그가 합기도관장으로 아이들을 지도하면서 겪은 에피소드를 들려주었다.

“공부만 강요당하던 아이를 지도한 적이 있었는데, 부모가 합기도를 그만두게 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부모가 다급하게 찾아와서 아이를 살려달라는 겁니다. 무슨 일인가 보니, 공부로 스트레스를 받아 아이가 정신을 놓아버렸더라고요. 방에 틀어박혀서 합기도에서 배운 동작만 하는데,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컸습니다.”

공부도 물론 중요하지만, 공부만 강요하면 뇌에 열이 차오르게 된다는 것. 또한 최근에는 아이들이 핸드폰만 쳐다보는데, 작은 화면에만 집중하다 보면 뇌가 그만큼 갇히게 된다고,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며 에너지를 발산해야 몸과 마음이 건강해질 수 있다는 말을 전했다.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풀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을 만나면 아이에게 축구를 시키라고 꼭 강조하죠. 체력 증진은 기본이고, 단체종목이기에 공격과 수비할 때 함께 움직이다 보면 단합력과 사회성이 길러집니다.”

누구보다 축구의 진면목을 알고 있는 김운석 부회장. 그는 해운대구축구협회장을 역임하던 중 2017년 해운대구 U-15 축구단을 창단하였다.



“해운대구에 중학교 축구팀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타지로 나가지 않고, 지역 내에서 운동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또한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이 마음껏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후원회를 결성하기도 했죠.”

이러한 김운석 부회장의 노력 덕분에 해운대구 U-15 축구단은 오늘날 스포츠클럽의 모범 사례로 꼽히고 있으며, 작년에는 7명의 선수가 프로 산하 축구팀에 입단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축구를 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그 매력을 알 수 없습니다. 열정적으로 축구를 하며 땀을 쏟아낸 뒤, 샤워하고 나면 스트레스도 풀리고 기분도 절로 좋아집니다!”

옛 관습을 떨치고 건강한 미래로

어린 시절부터 축구를 좋아했던 김운석 부회장은 건설업을 하면서도 해운대구축구협회 회장, 부산광역시축구협회 수석부회장을 역임해왔다. 김운석 부회장의 축구 사랑은 그의 경영 철학에도 녹아있다.

“약속, 신의, 의리. 이 세 가지 없이는 절대 사업에서 성공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업은 혼자서 할 수 없기에 회사를 든

든히 받쳐주는 직원들과 함께해야 합니다. 축구에서 공격수가 공격하려 갈 때, 다른 선수들이 백업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2020년부터는 부산광역시체육회 부회장을 역임하며 부산체육의 든든한 조력자로 활동하고 있는 김운석 부회장. 앞으로 체육계가 옛 관습을 떨치고 건강한 미래로 나아갔으면 한다고.

“과거 선수들이 운동할 때만 해도 기강을 잡으려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관습이 남아있는 몇몇 지도자들이 선수를 훈계하는 경우를 매스컴을 통해 종종 접하곤 하는데, 빨리 잘못된 관습을 떨쳤으면 합니다. 올바른 성교육 및 인성교육을 바탕으로 건강한 문화가 확산되길 바랍니다.”

더불어 김운석 부회장은 과거 국제대회에서 메달을 땀던 원로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지도자로 대우해줘야 한다는 말과 함께 비인기 종목에 대한 관심과 지원도 확대되면 좋겠다는 뜻을 전했다.

“아직도 여러 방면으로 소외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을 찾아 도움을 드리는 일이 제 남은 사명입니다. 지금처럼 묵묵하게 든든한 조력자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솔선수범으로 지도하다 대한민국 1호 국제심판장

부산광역시배드민턴협회 조원규 고문

조원규 고문은 우리나라 배드민턴 역사의 산증인이자, 국제경기 규정 보급과 심판 양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 온 인물이다. 선수들을 존중하며 배드민턴을 향해 여전히 뜨거운 열정을 쏟아내는 그를 만나보았다.

스윙 초보에서 전국대회 출전까지

배드민턴은 대중적이지만 제대로 훈련을 시작하면 꽤 어려운 운동이다. 조원규 고문도 처음에는 배드민턴이 이런 운동인지 몰랐다고 한다. 그런 그가 배드민턴을 하게 된 이유는 선생님의 달콤한 권유 때문이었다.

“중학교 1학년 때 야구부에 들어가고 싶어서 심부름으로 물 주전자를 들고 가다, 배드민턴 훈련하는 걸 보게 됐습니다. 당시 지도자이셨던 송빈소 선생님께서 전국체육대회에 보내주겠다고 배드민턴을 권유하셨고, 그렇게 시작하게 됐어요. (웃음)”

물론 전국체육대회에 나가리라는 꿈을 바로 이루지는 못했다. 기초부터 튼튼히 쌓아 올리기 위해 스윙 연습으로만 첫해를 보냈는데, 정말 힘들었다고 한다. 지금은 배드민턴 라켓이 70~80g으로 가볍지만, 당시는 우드라켓으로 무게가 120~130g이 나갔다. 평소에는 습도에 영향을 받아 틀어지지 않도록 라켓을 프레스에 고정시켜 보관하다 보니 더 무거웠다. 그래도 돌이켜 보면 힘들지만은 않았다.

“송빈소 선생님이 운동만 잘하셨던 게 아니라 품이 정말 예뻐셨지요. 그래서 저의 제자 중에도 품이 참 예쁜 선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배운 게 제자들에게도 흘러간 것 같아 참 감사합니다.”

고등학교에 진학해서는 ‘운동을 하려면 똑바로 하고, 안 되면 공부를 해라.’는 아버지의 조언으로 공부에 열중해 고3 때는 특별반에도 들어갔다. 한창 공부해야 할 시기, 학교에서 단체전에 참가한다는 소식이 들렸다.

“단체전에 참가하려면 4명이 되어야 하는데, 1명이 모자란다고 하더라고요. 부모님, 선생님 몰래 시합에 참가하려고 경기 전날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하필이면 묵었던 숙소에서 연탄가스가 새어 나오는 바람에 일산화탄소에 중독되어 시합에는 나가보지도 못했습니다.”

이후 1965년 제46회 광주 전국체육대회에는 출전하게 되었는데, 당시 부산광역시양궁협회장이었던 그의 아버지와 함께했던 대회여서 더욱 뜻깊었다. 49회에는 펜싱 선수였던 아내와 참석해 지금까지 소중한 경험으로 남아있다.



제가 직접 배드민턴 클럽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익히고 배웠던 노하우와 경험을 어린 선수들이나 젊은 지도자들에게 공유하고 싶은 마음이 큼니다.

우리나라 최초 국제심판장이 되기까지

이후 지도자로 활동했던 그는 생계를 위해 배드민턴계를 잠시 떠나 해외에서 일했다. 잠깐 한국으로 들어왔을 때 지도자로서 자질을 먼저 알아본 최일현 감독(당시 부산시청 감독)이 '영어도 되니 국제심판을 해보면 어떻겠냐'고 권유했다. 처음에는 누군가를 판단하고, 지시하는 것이 적성에 맞지 않다고 여겼다. 그러다 1989년도 세계선수권대회에서 국내심판으로 국제대회를 처음 경험하고 느낀 바가 있어서 국제심판에 도전하기로 결심하게 되었고 1993년도에 국제심판 시험을 치렀다.

“그때 실기는 합격했는데 필기는 떨어졌죠. 왜 틀렸지, 고민하며 오답 정리를 해보니 한국에서 배웠던 것들이 국제무대에서는 통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배드민턴 경기 규칙은 일본에서 건너와 한국과 일본에서만 통용되고 있었다. 국제규격과 다른 답을 적어낸 문항은 당연히 틀릴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국제심판장인 싱가포르 출신 라우 텡 추안을 통해 국제 규칙에 대해 정확하게 알게 되었고, 이후 1994년도에 조원규 고문은 국제심판 자격을 얻을 수 있었다.

“제가 국제심판으로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세 사람의 도움과 가르침이 컸습니다. 싱가포르의 라우 텡 추안, 국제심판으로서 성장하게 단련시켜 준 말레이시아의 프렌시스 쇼우, 인도네시아의 주니아르토. 이들은 심판의 실질적인 역할에 관해 정말 많이 알려주었고, 그분들 덕분에 제가 국제심판장까지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그는 1997년도에 국제심판장이 되기 위한 코스를 밟아 임시 국제심판장 자격을 취득해 1998년도부터 아시아 연맹 심판장으로 활동하며 실전 경력을 쌓고 마침내 2004년도 1월 1일, 정식 국제심판장이 되었다.

“2004년 1월 1일이 되자 편지가 왔습니다. ‘레프리로 함께 일하게 되어 기쁘다.’라는 내용이었는데, 편지를 읽고 나서야 진짜 정식 심판장이 되었다는 실감이 났습니다.”



경기의 규칙을 제대로 알아야
공정한 경기가 되기에,
심판 양성 교육에서
가장 힘쓰는 것은
‘끊임없이 공부하는 자세’이다.



실수를 인정하는 술선수범의 자세로

국제경기 규정 보급과 심판 양성을 위해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최선을 다해 온 조원규 고문은 그 공로를 인정받아 BWF(세계배드민턴연맹)로부터 특별 공로상을 수상했다. 1998년 문화체육부 표창장, 2003년 대통령 표창장에 이어 세 번째로 받은 특별 공로상은 그가 배드민턴 지도자로서 그리고 국제심판, 국제심판장으로서 얼마나 최선을 다해 왔는지를 짐작하게 한다. 그렇지만 보이는 트로피보다 보이지 않는 가치를 알아봐 주는 사람들이 더 고맙다는 조원규 고문. 그런 그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실수를 인정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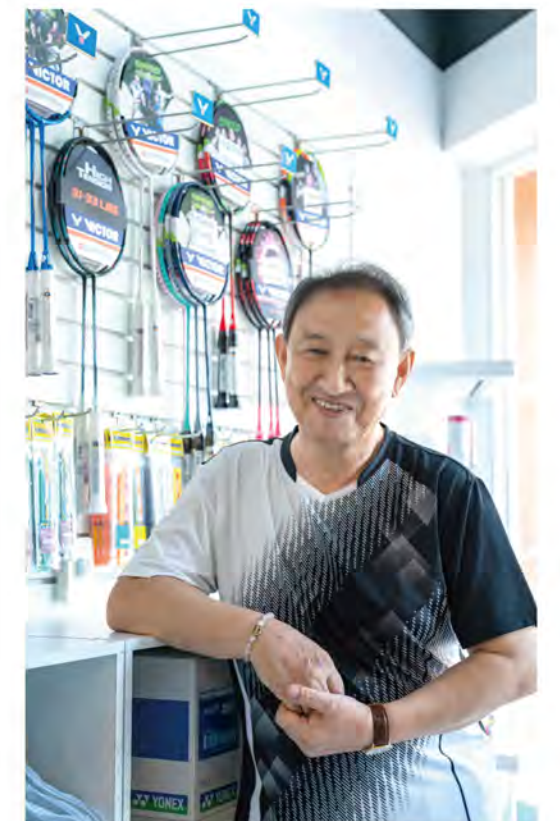
“심판 양성 교육을 하며 꼭 언급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제 실수를 표본 삼으라는 것입니다. 제가 국제 경기에서 여러 실수를 할 때마다 ‘왜 한국 심판들은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냐.’는 말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처음 하는 실수인데, 어쩌서 그런 말을 들을까 싶었는데, 이전에 한국인 심판들이 본인이 했던 실수를 절대 다른 한국인 심판들에게 공유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국제 경기에서 한국인 심판이 유독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실수를 교훈으로 삼아 앞으로 한국인 심판들이 저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또한 조원규 고문은 국내 4급 심판 제도를 만들었다. 그 이유는 생활체육 종목으로 배드민턴 경기를 할 때, 심판을 보는 사람들이 기본적인 경기 규칙과 심판법을 전혀 모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경기의 규칙을 제대로 알아야 공정한 경기가 되기에, 심판 양성 교육에서 가장 힘쓰는 것은 ‘끊임없이 공부하는 자세’이다.

앞으로 조원규 고문이 하고 싶은 일은 다시 지도자로서 어린 꿈나무 선수들을 양성하는 것이다.

“배드민턴은 실내 체육관에서 해야 하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 실내 체육관 사용을 클럽도 자유롭게 쓸 수 있게 한다면, 제가 직접 배드민턴 클럽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익히고 배웠던 노하우와 경험을 어린 선수들이나 젊은 지도자들에게 공유하고 싶은 마음이 큼니다. 나이 든 사람의 경험이 얼마나 값진지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생활체육에서도 정확한 배드민턴 규정을 활용할 수 있도록 선진 제도를 만든 조원규 고문. 우리나라에서 배드민턴이 손쉽게 많은 사람이 즐기는 스포츠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노력 덕분이 아닐까.



단단한 명사수의 금빛 정조준!

부산영상예술고등학교 사격부 김주리 선수

“사격은 겉보기엔 정적으로 보이지만, 내면은 다른 운동과 마찬가지로 아주 격한 스포츠입니다. 특히 자신과의 싸움이 가장 치열하죠.” 사격의 매력을 묻자 차분하게 답변하는 김주리 선수. 외면은 담담해 보이지만, 내면은 누구보다 단단한 그의 모습은 마치 사격과 닮아있다.



차근차근, 과녁을 조준하다

올 한 해 다양한 대회에 출전하며 다채로운 활약을 펼치고 있는 김주리 선수. 지난 6월 ISSF 줄 주니어 월드컵사격대회에서 10m 공기권총 여자 단체전과 혼성 부문에서 금메달을 차지하며 2관왕을 달성했다. 생애 처음 출전한 국제대회에서 큰 성과를 거둔 소감을 들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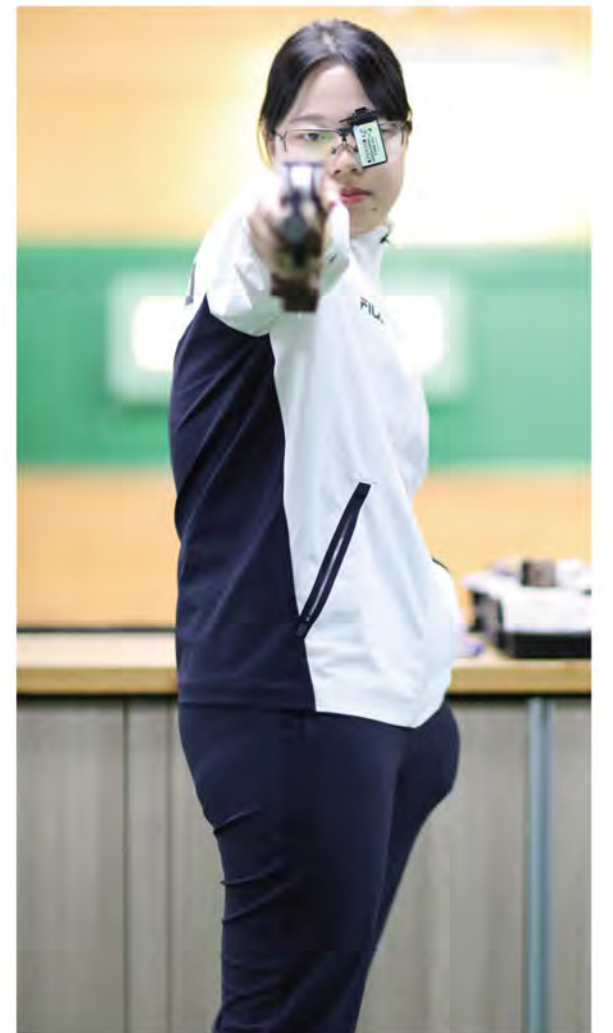
“전국대회보다 큰 규모의 국제대회이다 보니 당연히 긴장되었어요. 하지만 얻을 것이 많은 값진 순간이기에 더욱 대회를 즐겨보려고 생각했습니다.”

대회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을 묻자, 나이답지 않은 성숙한 대답이 돌아왔다.

“혼성 결선 때 대한민국 선수단 분들이 열정적으로 응원해주셨어요. 원래 자신감이 부족한 편인데, 이 응원에 힘입어 마지막에 10.7점을 쏴 금메달을 확정 짓게 되었죠. 그 순간 지금까지 도움 주셨던 분들이 생각났고, 지금까지 받았던 도움에 대해 금메달로 보답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이후 출전한 ISSF 창원 세계주니어사격선수권대회에서는 10m 공기권총 여자 단체전 은메달을 차지하였으며, 공기권총 2023년 사격국가대표 후보선수로도 선발되어 하계합숙 훈련에 참가하는 등 10대의 마지막 시기를 숨 가쁘게 보내고 있다.

어느덧 사격 선수가 된 지도 6년 차. 당시 운동에 흥미를 느꼈던 김주리 선수는 가야여중에서 사격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처음 출전한 전국대회에서 단박에 우승을 차지하였다.



“첫 전국대회여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출전했어요. 당시 우승했다는 것보다도 나에게는 나만의 재능이 있다는 걸 발견한 기쁨이 더 컸어요!”

그렇게 사격의 재능을 발견한 기쁨으로 창대한 포문을 열었지만, 이후 입상권에 들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주리 선수는 이를 슬럼프라 여기지도, 애써 이 순간을 극복하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저 자신만의 속도로 묵묵히 과녁을 조준하고 있었다.

눈빛으로 당기는 방아쇠

사격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바탕으로 차근차근 실력을 쌓아가던 김주리 선수. 부산영상예술고등학교 사격부에 진학하면서 그동안 갈고닦은 내실이 하나둘 결과로 증명되기 시작했다.



다양한 대회에서 입상은 물론 대회 신기록을 세우는 등 거침 없는 활약을 펼치게 되었는데,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예를 들면 제 생각이 틀렸을지언정, 코치 선생님께서 일단 (사격을) 해보라고 하세요. 그러면 ‘이건 아닌 것 같다’라고 깨닫거든요. 선수 스스로가 사격 루틴을 체득할 수 있도록 믿고 기다려주신 지도 덕분에 실력이 향상된 것 같아요.”

이러한 답변에 김주리 선수를 지도하고 있는 양시정 코치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이런 훈련과 관련된 부분을 언급한 적이 전혀 없었는데, 주리 선수가 이미 느끼고 있어서 놀랐습니다. 물론 인고의 시간 이긴 하지만 (웃음) 선수가 조금해하지 않고 자신만의 사격 루틴을 만들어낼 때 비로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양시정 코치는 선수들을 지도할 때 ‘긍정적인 마인드’를 항상 강조하며, 피드백을 통해 사격 루틴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선수가 자신감을 가지고 훈련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그 가운데 김주리 선수는 고등학교 입학 당시와 비교했을 때 엄청난 성장을 했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주리 선수가 경기를 할 때 처음에는 심리적으로 위축되거나 당황해하기도 했는데, 지금은 그 원인을 파악하고 잘 대처하더라고요. 시합장에서도 여유가 느껴질 정도입니다.”

부산영상예술고등학교 사격부는 선수와 지도자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끈끈한 유대관계가 형성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소통이 이뤄지고 있는 덕분에 김주리 선수는 지도자의 눈빛만 봐도 마음을 알 수 있게 되었다.

“코치님께서 평소에도, 시합장에서도 말씀이 별로 없으신데, 대신 신호를 주세요. 눈빛으로 ‘너 이렇게 해라’라고 말이죠. 그러면 저도 ‘네, 알겠습니다!’ 눈빛으로 대답합니다. (웃음)”

명사수, 사격을 즐기다

사격은 온몸을 가다듬고 과녁을 집중해 총을 쏘는 종목이다. 그렇기에 사격 선수에게 호흡과 마인드 컨트롤은 중요한 요소다. 김주리 선수는 다양한 경험을 통해 체득한 자신만의 방법으로 긴장감 속에서 그 떨림을 심호흡으로 가다듬는다고 한다.

“사격 선수에게 마인드 컨트롤은 가장 중요한데요. 심리를 방해하는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꾸려고 해요. 만약 점수가 좋지 않았더라도, 성적에 연연하기보다는 ‘사격 행위와 사격 루틴을 완성 시켜야겠다’라고 마음먹으면 항상 그다음 끝맺음은 좋더라고요.”

그런 마음가짐은 자연스레 자신의 기록을 넘어서거나, 대회 신기록을 깨는 등 좋은 결과로 이어지게 되었다. 또한 더욱 담대한 배짱까지 길러지게 되었다고.

“이제는 좋지 않은 순간이 찾아오더라도, 힘들고 무섭다고 느껴지지 않아요. 오히려 즐길 자신이 생겼어요.”

김주리 선수는 하반기 남은 대회와 전국체육대회 출전을 앞두고 있다. 작년 전국체육대회에서 단체전 금메달을 차지했던 그는 이번 대회에서 사격부 주장으로 동료들을 이끌게 되었다.

“최근에 따로 시합을 출전하거나 훈련을 받다 보니 사격부 선수들과 함께한 시간이 적었는데요. 그럼에도 사격부 선수들이 서로 많이 보살펴주고 끝까지 올 수 있어서 고마운 마음이 커요. 고등학생으로서 마지막 출전하는 전국체육대회인 만큼 후회 없이 즐기겠습니다!”

앞으로 김주리 선수는 지도자로서의 길을 가고 싶다는 작은 목표를 내비쳤다. 후배들이 선수의 재능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끝까지 꿈을 펼칠 수 있게 일에 뒷받침해주고 싶다는 것. 그렇기에 김주리 선수는 매 순간 노력하고 지금보다 나은 선수가 되고 싶다는 포부를 전했다. 누구보다 단단한 마음을 가지고 대담하게 과녁을 조준하고 있는 김주리 선수. 그의 눈부신 활약을 기대하며 응원한다.



주요 수상내역

- 2023 ISSF 줄 주니어 월드컵사격대회 공기권총(여) 단체 및 혼성 1위
- 2023 ISSF 창원 세계주니어사격선수권대회 공기권총(여) 단체 2위
- 2023 제47회 회장기 전국중·고등학생 사격대회 공기권총(여) 단체 1위
- 2023 제45회 총무기 전국중·고등학생 사격대회 공기권총(여) 개인 1위
- 2022 제103회 전국체육대회 공기권총(여) 단체 1위

지도자 인터뷰

양시정 코치



주리 선수는 본인 스스로 약하다고 평가하는데, 옆에서 지켜본 바로는 누구보다 강한 선수입니다. 성실함을 바탕으로 노력하는 것은 물론 인성까지 갖춘 멋진 선수죠. 주리 선수가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편인데, 한날은 속이 많이 상했는지 시합 후 울음을 참는 모습을 보아서 가슴 아팠던 기억이 납니다. 반면 제103회 전국체육대회 우승 후 해맑게 기뻐했던 모습도 생각이 나네요. 너무 욕심내지 말고, 시합할 때 자신의 사격 행위를 믿고 임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잘해나갈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사격’하면 ‘김주리’라는 이름이 떠올려질 것 응원합니다. 김주리 파이팅!



부산시민체육대축전은 시민 생활체육 천국 도시 부산 조성을 위해 부산시민의 날을 기준으로 매년 9~10월에 개최되었으며, 올해로 34회째를 맞이한다. 올해는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염원하고 부산시민과 동호인이 함께 참여하는 명실상부한 시민의 체육 축제로 거듭나기 위해 기존 하루 행사에서 1박 2일 행사 일정으로 확대되었다. 행사명 또한 기존 '부산시민체육대회'에서 '부산시민체육대축전'으로 변경했다.

시민 모두 하나되는 축제의 장 제34회 부산시민체육대축전

일자 _ 2023.9.23(토) ~ 24(일) [*전야제 : 9.23]
주최 _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체육회
주관 _ 부산광역시체육회, 구·군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장소 _ 부산종합운동장 조각공원 등 종목별 경기장
참가인원 _ 25,000여 명

부산광역시와 부산광역시체육회가 주최하는 제34회 부산시민체육대축전이 9월 23일(토)부터 24일(일) 양일간 개최된다. 일반시민, 16개 구·군선수단 및 임원 등 25,000여 명이 참가하는 이번 축전은 전야제와 놀이마당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일반시민과 생활체육인 모두가 하나되는 부산 최대 규모의 범시민 축제의 장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1일 차 9월 23일 일정은 참여마당, 식전 공연, 개회식 및 축하공연 등으로 이루어진다. 식전 행사에는 '국가대표 태권도시범단'과 '소리숲 공연', '프로댄스스포츠' 공연이 예정돼 있으며 각 구·군별 독특하고 이색적인 선수단 입장 행진(퍼레이드),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기원 퍼포먼스, 선수대표 선서 등으로 공식 행사가 진행된다. 축하공연으로는 노라조, 박미경, 설하윤, 김희재 등이 출연하며 개그맨 홍인규가 사회를 맡는다.

2일 차 9월 24일에는 아시아드주경기장, 사직실내체육관, 기장월드컵빌리지 등에서 종목별 경기 및 부대행사가 운영되며, 폐회식을 마지막 순서로 행사가 마무리된다.



운영 종목은 검도, 국학기공, 당구, 배구, 배드민턴, 볼링, 체조, 탁구, 태권도, 게이트볼, 그라운드골프, 족구, 줄넘기, 축구, 테니스, 파크골프 등 구·군 대상 16개 종목으로 동호인 선수들이 생활체육 종목별 경기를 치른다. 사직실내체육관 일원의 조각공원에서는 '스크린 스포츠 체험', '닌텐도 스위치', '가상현실(VR) 스포츠 체험' 등 부산시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5년을 기다린 아시아 최대 축제 2022 항저우아시아경기대회

오는 9월 23일에 '2022 항저우아시아경기대회'의 막이 오른다. 아시아경기대회는 4년에 한 번씩 열리는 아시아 최대의 종합 경기 대회이자 아시아 국가들의 우호를 다지는 화합의 장으로, 올해로 19회째를 맞았다. 코로나19의 여파로 개최가 1년 연기된 만큼 한층 더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색다른 재미와 감동 기대

'2022 항저우아시아경기대회'는 중국 저장성 항저우 일대에서 9월 23일부터 10월 8일까지 진행된다. '마음이 서로 통하면 미래가 열린다'는 슬로건 아래 개최되는 이번 아시아경기대회에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45개국 1만 2,500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한다.

개막식과 폐막식은 항저우 올림픽 스포츠 센터에서 진행되며, 40개 정식종목, 481개 경기가 항저우, 후저우, 진화, 닝보 등 6개 도시에서 분산되어 치러질 예정이다. 골프, 배구, 수영, 양궁, 축구 등 40개 정식종목 중 주목할 종목은 'e스포츠'와 '바둑'이다. 시범종목이었던 e스포츠가 처음으로 정식종목에 채택되었으며,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등의 경기가 열린다. 또한, 바둑은 13년 만에 다시 정식종목에 채택되어 남·여 단체전 등 3개 종목의 경기가 펼쳐진다. 이 외에도 쉽게 볼 수 없었던 세팍타크로, 우수, 주짓수, 카바디, 크리켓 등의 종목이 채택되어 어떤 재미와 감동을 선사할지 기대를 모은다. 중국은 1990년 베이징아시아경기대회와 2010년 광저우아시아경기대회에 이어 아시아경기대회를 세 번째 개최하는 만큼 경기장 신설 및 리모델링 등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

대한민국, 종합 3위 목표

우리나라는 선수, 코치 등 역대 최대 인원인 1,140명의 선수단을 파견하여 39개 종목에 출전하며, 아시아경기대회 종합 3위에 도전한다. 아시아경기대회는 1951년부터 시작하였으나 우리나라는 2회(1954년)부터 참가하였고, 그때부터 꾸준히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다. 특히 13회(1998년, 태국 방콕)부터 17회(2014년 대한민국 인천)까지 무려 5회 연속 2위를 차지하였고, 18회(2018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아경기대회에서는 3위를 차지하였다. 대한체육회는 현재 우리 선수단이 세대교체가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종합 3위라는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하였다.



우리나라가 금메달 획득을 예상하는 종목은 양궁, 태권도 등 기존에 강세를 보였던 종목들과 이번에 채택된 e스포츠, 바둑, 브레이킹 종목이다. 이와 더불어 야구와 펜싱은 4연패, 축구는 3연패에 도전한다. 종목별 기대주로 꼽히는 선수는 높이뛰기 이상혁, 배드민턴 안세영, 수영 황선우, 체조 여서정, 탁구 신유빈 등이다. 우리 선수단은 8월 24일에 가진 '2022 항저우아시아경기대회 D-30 미디어데이'에서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 준비한 만큼 후회 없는 경기를 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부산소속 국가대표 선수들을 함께 응원해주세요!

- 김세희(근대5종·부산광역시체육회)
- 손영희·김수현·유원주(역도·부산광역시체육회)
- 유재진(스쿼시·부산광역시체육회)
- 김영철·이민주·한예지·최지나(세팍타크로·부산환경공단)
- 송세라·마세건(펜싱·부산광역시청)
- 하지민·조원우(요트·해운대구청) 등 18개 종목 72명의 선수



최강 전력으로

세팍타크로의 새 역사를 쓰다

부산환경공단 세팍타크로 여자팀



부산 세팍타크로는 전국체육대회에서 종합우승 5연패를 차지하며 명실상부 전국 최강자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그 가운데 우승의 견인 역할을 톡톡히 하는 부산환경공단 세팍타크로 여자팀을 만나보았다.

전략적으로 우승을 도모하다

부산환경공단은 오래 전부터 명성이 자자했던 부산광역시 세팍타크로팀을 인수하여 2006년 1월 남자부, 2008년 1월 여자부를 창단하였다. 부산환경공단 세팍타크로팀은 정식 출범 이래 2008년 전국체육대회에서 남자부 은메달, 여자부 동메달을 획득하며 전국 종합 2위의 성적을 기록한 것을 시작으로, 각종 전국대회에서 우승을 기록하며 기세를 올리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곽성호 감독과 부산환경공단 여자선수들이 주축이 되어 참가한 2017, 2018년도 세계선수권대회에서는 금메달을, 자카르타 아시안경기대회에서는 은메달을 거머쥐는 등 우수한 경기력을 보여주며 대한민국 세팍타크로의 위상을 높이기도 했다. 오는 10월에 개최될 제104회 전국체육대회에서의 활약도 기대되는 가운데, 대회 준비가 한창인 부산환경공단 세팍타크로 여자팀을 만나보았다.

“평소 훈련은 시존과 비시존으로 구분합니다. 선수들의 부상, 신규 선수와 기존 선수들의 경기력, 체력, 기본기술, 공통기술, 전문기술 훈련 등을 세분화해서 1년간의 계획을 세운 후 그에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자팀을 지도하고 있는 곽성호 감독은 이번 전국체육대회 준비 역시 일 년 계획에 포함되어 있다고 전했다.

“각종 대회를 거치면서 선수들 개개인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경기력을 검증했습니다. 항저우 아시안경기대회에 참가하는 국가대표 선수들은 8월 중순에 차출되어 전국체육대회 일주일 전에 훈련에 합류할 예정입니다. 선수들의 부상과 피로 문제도 있고, 팀 내에서 손발을 맞출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겠지만, 전력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곽성호 감독은 네 번의 전국대회를 함께한 선수들이 그동안 묵묵히 쌓아온 팀워크를 통해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면 선수들을 향한 믿음을 보여주었다. 그렇다면



곽성호 감독

과연 곽성호 감독과 선수들을 움직이는 원동력은 무엇일까.

“제일 중요한 부분은 지도자와 선수 간의 신뢰, 즉 서로간의 믿음인 것 같아요. 훈련을 통해 약점을 보완하고 발전할 수 있다는 믿음, 시합에서 지도자의 전술이나 전략에 대한 선수들의 믿음, 선수들이 해낼 수 있다고 믿는 지도자의 믿음이 모여서 좋은 경기력과 성적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는 자신과의 싸움

서로간의 돈독한 믿음을 자랑하는 부산환경공단 세팍타크로 여자팀. 부산환경공단과 부산광역시세팍타크로협회는 선수들의 실력 증진을 위해 다방면의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고.

“부산환경공단과 부산광역시세팍타크로협회의 지원을 받아 해외 전지훈련 및 태국선수단 초청을 통해 선진기술을 습득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스타일을 가진 중주국 선수들과의 합동훈련 및 평가전을 통해 경기 경험을 쌓고 있습니다.”

또한 부산스포츠과학센터에서 컨디션닝 프로그램, 심리상담 등을 진행해 선수들의 ‘멘탈 케어’도 놓치지 않고 있다. 각종 우승을 거머쥐는 ‘최강 전력’ 세팍타크로팀을 만들기 위한 여정이 쉽지만



은 앓을 터. 박성호 감독은 산 정상은 좁고, 공기는 희박하다며 '등이 되는 순간부터 나와야 싸움이 시작된다'는 것을 언제나 마음속에 새기며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팀을 독려한다.

"때로는 선수들을 몰아붙이기도, 아픔을 모른 척하기도 했어요. 선수들 스스로가 한계를 극복하고 뛰어넘었으면 하는 마음이었죠. 그럼에도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좋아하는 세팍타크로를 신체적, 정신적으로 즐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건강해야겠죠. 이번 항저우 아시안경기대회에 참가하는 국가대표 선수들도 최선을 다해서 부상 없이 좋은 성적으로 복귀하길 바란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부산환경공단 세팍타크로팀은 10월 부산광역시 대표로 제 104회 전국체육대회 출전을 앞두고 있다. 박성호 감독은 많은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경기에 임하며 종합우승 6연패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든든한 각오로 마무리 인사를 전했다.



부산환경공단 세팍타크로 여자팀 우승 전적

그랜드슬램 달성 (2016~2018)

전국체육대회

- 금메달 5회(2012, 2014, 2016, 2017, 2018)

- 은메달 4회(2011, 2013, 2019, 2022)

회장기 세팍타크로대회 10연승 (2011~2020)

퀴드이벤트 연속 우승(2020~2022)

선수 인터뷰

김이슬(주장, 킬러) :

선수활동은 19년차, 부산환경공단 세팍타크로 팀에서는 16년째 활동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운동을 워낙 좋아해서 태권도를 배우기도 했어요. 그러다 중학생이 되었고, 당시 담임 선생님께서 운동하는 모습을 보시고 세팍타크로 종목을 추천 해주시더라고요. 저희 학교에 있던 종목은 아니었지만, 담임 선생님과 친분이 있는 동료 선생님의 학교에서 운영하던 종목이라 접할 수 있었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세팍타크로와의 인연이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한 번은 경기 중에 세팍타크로를 잘 모르시는 분께서 '소림 축구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웃음) 그 정도로 아크로바틱한 모습, 다이내믹하게 경기하는 파워풀한 모습이 바로 세팍타크로의 매력 아닐까 싶어요. 물론 힘든 순간도 있어요. 모든 훈련이 쉽지 않지만, 특히 심리적 압박감이 느껴지는 시합을 앞두고 있을 때는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이번 시합이 내게 주어진 마지막 시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후회 없이 시합에 임할 수 있더라고요. 항상 열심히 노력하는 자랑스러운 동료들과 이번 전국체육대회도 늘 해오던 것처럼 안전하게, 다시 한 번 열심히 해보자고 말해주고 싶어요. 대회가 마무리된 이후에도 은퇴까지 부상 없이 최선을 다해 잘 마무리해볼 생각입니다.



김이슬 선수

송미정(킬러) :

공놀이를 좋아하는 저는 학창시절에 친구들과 축구를 즐겨했어요. 그때 고등학교 선생님이 세팍타크로를 한번 해보지 않겠냐고 권유하셨죠. 물론 세팍타크로와 축구는 엄청 다른 종목이에요. 축구는 공을 '뽕'하고 찬다면, 세팍타크로는 공을 어린 아이처럼 섬세하게 다뤄야 하는 운동이거든요. 그럼에도 세팍타크로는 너무 매력적이었고, 결국 그 매력에 빠져 18년째 이어오고 있습니다.

목표치가 높을수록 연습했던 것만큼 결과가 따라오지 않을 때 실망감이 크잖아요. 재작년 시도대항 경기를 준비할 때의 일인데, 훈련 중에 세 명의 동료 선수가 자포자기하며 농담으로 '나 안 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힘을 빼고 내려놓는 순간 훈련이 전보다 잘 흘러가고, 공도 더 잘 받아지더라고요. 황당한 상황에 웃음도 나고, 힘든 훈련이었음에도 재밌게 이어갔던 기억이 종종 떠오릅니다. 그 후로 훈련이 잘 안 풀릴 때마다 괜히 '나 안 해'를 외쳐보곤 하지만, 기적의 순간은 한 번뿐이더라고요. (웃음) 기적은 없었지만, 욕심을 내려놓으면 오히려 훈련에 더 몰입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10월에 전국체육대회를 앞두고 있는데 체력적, 기술적인 부분 모두 최대한으로 끌어올려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싶다는 다짐을 해봅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어떤 순간에도 자신감과 자존감을 잃지 말고, 서로 훈련을 통해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동료들로 성장해나갔으면 합니다.



송미정 선수

건강하고 활기찬 금정구를 위하여 부산광역시금정구체육회

금정구는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뿌리 깊은 역사문화자원을 보유한, 동부산 육로교통의 요충지로 '살기 좋은 도시'로 꼽힌다. 부산광역시금정구체육회는 22만 금정구민이 살기 좋은 도시에서 오래오래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0 금정구체육회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운동으로 건강하GO!, 금정구민 행복하GO!'라는 슬로건 아래 구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지역 체육 활성화를 통한 건전한 여가 선용 및 복지 향상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금정구체육회는 현재 60명의 임원과 21개의 회원종목단체(정회원 15개, 준회원 1개, 인정단체 5개), 190개의 클럽, 5,287명의 동호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생활 속의 체육' 문화를 만들기 위해 일반생활체육지도자 4명, 어르신전담생활체육지도자 4명 총 8명의 지도자가 일선에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0 금정구체육회는 오륜동인조잔디구장 등 각 종목별 전용구장을 보유(운영 및 위탁 관리)하고 있으신데요. 어떤 체육 시설이 있으며, 시설별로 어떤 체육 활동 및 대회가 진행되고 있는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우선 오륜동인조잔디구장은 지난 2021년 5월 리모델링 후 재개

장하였습니다. 축구, 그라운드골프, 파크골프 등 다양한 종목의 동호인들이 이곳에서 생활체육을 즐기고 있으며, '생활체육 축구 대회 K-7' 금정구 리그, '부산광역시장배 그라운드골프 슈퍼컵 예선전' 등 굵직한 체육대회도 개최하였습니다. 주요 체육시설에는 스포원파크, 금정구민체육관, 금정구청테니스장, 신천테니스장, 선동천연잔디구장, 수영강변 게이트볼장, 노포게이트볼장, 금정 족구장 등이 있습니다. 각 시설은 체육 단체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동호인 체육 활동과 더불어 9개의 구청장기 대회, 10개의 협회장기대회 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초고령화 사회라는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2023년 하반기 오륜동 정수장 부지 내 파크골프 전용구장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유휴 부지를 활용한 체육시설 추가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0 금정구체육회가 자랑하는 회원종목 단체 또는 프로그램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해당 종목 또는 프로그램이 체육회를 대표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금정구체육회가 자랑하는 회원종목단체는 '축구'입니다. 금정구 축구협회는 최근 각종 대회에서 뛰어난 성적을 거두며 금정구 체육의 위상과 명예를 드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제32회, 제33회 부산시민체육대회에서 2년 연속 1위의 성적을 거두었으며, 20~30대 청년부가 부산 대표로 제42회 대한축구협회장기 전국대회에 출전하여 공동 3위이라는 쾌거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금정구는 「1-리그 찾아가는 축구 축제 행사」 개최지로 선정되기도 하였으며, 일본 유소년축구협회와의 자매결연으로 국제교류의 장을 활발히 열고 있습니다.



또 다른 역점 프로그램으로는 '광장체육'이 있습니다. 평일 새벽 시간에 라인댄스를 배울 수 있는 '해·달맞이 생활체육교실', 스트레칭 등 올바른 운동 자세를 배울 수 있는 '우리동네체육코치', 치매예방체조 등을 알려주는 '어르신 야외체육활동교실'은 큰 호응을 얻으며 많은 인원이 꾸준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0 금정구체육회는 평소 생활체육 및 전문체육 활성화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가요? 앞으로의 운영 방향은 어떻게 되나요?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해 각 종목별 회원종단체와의 면담을 주기적으로 진행하여 적극적인 의사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스포츠 활동에 대한 구민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금정 소식지, 체육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활발한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소외 계층과 취약 계층에게도 생활체육 프로그램이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정구체육회는 동호인부터 지역 전문체육인까지 모두가 스포츠를 통해 건강하고 행복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시설 확충 및

스포츠 상업시설 유치를 이어가려 합니다. 온천천 일원의 자연 거도로, 헬스장, 농구장, 배드민턴장, 인라인스케이트장 등을 적극 이용하여 다양한 체육행사 및 이벤트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관내 기업체와 대외 협력 및 스포츠 발전 협약 등을 통해 체육회 소속 회원종목단체에 대한 스폰서십 유치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100세 시대를 대비하여 금정구민이라면 누구나 한 종목 이상의 스포츠를 취미로 즐길 수 있도록 건강하고 활기찬 금정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란히 마음의 페달을 밟으며 오늘도 함께 달린다!

자전거동호회 일사모팀



기승을 부리던 무더위도 한풀 꺾이고,
선선한 바람이 솔솔 불어오는 9월.
자전거를 타고 완전한 가을 날씨를 만끽해보는 건 어떨까.
특히 마음을 나누며 라이딩 하는 일사모팀과 함께라면
더욱 즐겁게 자전거를 탈 수 있을 것이다.



Q. 일사모팀 자전거동호회는 어떻게 만들어졌나요?

자전거를 즐겨 타던 분들끼리 서로 오가며 얼굴을 익히고 관계를 쌓던 중 동호회를 만들면 좋겠다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몇몇 분들이 의기투합하여 동호회 창단 계획을 세웠고, 2021년 7월 8일에 일사모팀이 탄생하였습니다. 일사모라는 이름에는 '자전거를 타기 위해 만난 그 '하루(1)' 동안 동호회원들이 서로 '사랑하는 '모'임이 되자.' 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Q. 회원들은 주로 어떤 동기를 가지고 동호회를 찾아오는지 궁금합니다.

자전거는 사람 성격에 따라 타는 방법도, 속도도 제각각입니다. 이런 시각으로 보면 자전거는 혼자 즐기기에 적합한 스포츠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전거를 통해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서로 호흡을 맞춰 함께 라이딩 할 때 오는 쾌감은 또 다른 짜릿함을 선사합니다. 이 기쁨을 함께 만끽하고 나누고자 하는 분들이 일사모팀을 찾아오십니다. 현재 50~70대 회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중 60대가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Q. 동호회에 대해 자랑한다면?

무엇보다 '관계 형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동호회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있어서 사람 간의 관계가 단단하면 만사형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일사모팀은 만나면 항상 서로 포옹하며 마음을 나누곤 합니다. 또한 동호회원들 간의 의견을 원만하게 조율하며 서로 하나 되다 보니 자연스럽게 동호회 분위기가 좋다는 입소문이 나게 되고, 동호회 창단 2년 만에 회원 수가 약 60명이 되었습니다. 현재도 많은 분들께서 저희 일사모팀과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데요. 너무 많은 인원이 함께 라이딩 하기에는 안전이 염려되어 심사숙고해서 회원들을 받고 있습니다.

Q. 활동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월·수·금과 화·목요일에 격주로 모이며, 보통 15~25명 정도 동호회원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루 5시간 정도 정해진 코스를 따라 자전거를 타는데요. 코스 선정 기준은 그날 자전거를 타고자 하시는 분들을 미리 파악해서 리더가 선정합니다. 가령, 여성회원들이 많이 참여하는 날에는 험하지 않은 코스를, 또 하루는 힘든 코스를 했다면, 그다음 모임에는 상대적으로 수월한 코스를 선택하는 등 다양한 상황들을 고려합니다. 더불어 중간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나, 화장실 유무 등도 코스 선정할 때 세심히 체크하고 있습니다.



Q. 자전거를 탈 때 가장 중요시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첫째도, 둘째도 안전입니다. 보통 25명 내외의 동호회원들이 참여하는 만큼 사고 없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출발 전에 안전에 대해 누차 강조하고 있으며, 리더가 앞에서 이끌면 회원들이 질서를 지키며 뒤따라오는 방식으로 자전거를 탑니다. 또한 회원이 다른 회원을 앞서가거나 할 때는 먼저 지나가겠다고 신호를 주고 움직이며, 전기자전거를 타는 회원들이 MTB 자전거 타는 회원을 보호해주며 타고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작은 사고들이 있었으나, 지금은 안전하게 라이딩 하고 있는데요. 그 밑바탕에는 회원 간의 사랑을 바탕으로 서로 배려하는 화목한 관계가 형성되었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Q. 자전거에 흥미는 있지만, 막상 시도하기를 망설이는 분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자연을 만끽하며 자전거를 타다 보면 어느새 건강해진 자신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신체가 활력이 넘치면 자연스레 마음도 건강해지기 마련입니다. 자전거를 통해 몸과 마음의 건강을 찾고 싶은 분들은 누구든지 함께 라이딩 하며 힐링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자전거도 바퀴 두 개가 함께 돌아가야 움직이듯, 우리네 인생도 서로 함께할 때 기쁨이 넘칩니다. 우리 일사모팀과 함께 자전거의 참 매력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Mini Interview

자전거를 타며
오늘 하루도
서로 사랑합시다!



정일교 리더



'사랑합니다' 제가 우리 일사모팀 회원들에게 자주 하는 말입니다. 인사도 '안녕하세요' 말고 '사랑합니다'라고 하죠. (웃음).

사업으로 만났던 분이 소유했던 자전거를 구매한 그 날부터 본격적으로 자전거를 타기 시작했는데, 그게 벌써 7년 전이네요. 단기간에 자전거에 매력에 빠진 이후 을 속도에서 자전거를 교육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지도했으며, 동호회에도 가입해 활동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회원들 간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일사모팀 리더를 맡으면서 회원들이 서로 사랑하고 배려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많이 노력했습니다. 이런 제 뜻을 이해해준 리더분들과 고문님, 또 적극적으로 따라준 회원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처럼 저희 일사모팀은 서로 사랑하는 분위기 속에서 자전거를 즐기다 보니 회원들이 삶의 활력을 되찾았다는 말을 자주 하곤 합니다.

앞으로도 일사모팀은 서로 호흡을 맞추며 함께 달리는 자전거동호회가 되겠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도 어색해하지 않고 잘 융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고 있으니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온전히 자전거를 즐기려 오세요!

스포츠맨으로 성장하는 첫걸음 부산어린이농구교실

글 _ 제3기 부산스포츠기자단 이민철



지난 8월 19일(토) 부산광역시체육회관에서 진행되는 부산어린이농구교실 현장을 방문했다.
농구의 참 매력을 느끼며 스포츠맨으로 성장하는 어린 선수들의 열기가 느껴졌다.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직로 77에 위치한 부산광역시체육회관. 이곳에서 매주 토요일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농구교실이 진행되고 있다.

유년 및 청소년 시기에 농구를 배우고 참여하는 것은 많은 이점이 있다. 신체 발달과 건강 증진과 같은 물리적인 측면뿐 아니라, 협동심과 팀워크, 자신감 향상, 스트레스 해소, 친구들과의 유대 형성 등 이 시기에 꼭 필요한 사회적·정서적 발달을 촉진한다.

부산어린이농구교실은 부산 지역에 살고있는 학생들에게 체육인으로서 스포츠 참여 기회를 제공하며 학생들이 다방면적으로 발달할 수 있도록 목표를 삼고 있다.

취재를 위해 방문한 부산어린이농구교실 현장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지도자들이 경기 중 패스를 강조하는 점과 중간중간 ‘그렇지’, ‘잘했어’와 같은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로써 아이들은 농구를 통해 협동심과 함께 자신감을 쌓아가고 있다.

Interview



염은미
부산어린이농구교실 지도자

부산의 다양한 지역 학생들이
마음껏 뛰어놀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농구 선수로 활동했었고, 이후 동주여중에서 지도자 생활을 한 뒤, 2017년부터 부산광역시체육회의 어린이농구교실 지도자를 맡고 있습니다.

Q. 어린이농구교실의 프로그램이 어떻게 진행되나요?

수업 시간은 총 80분입니다. 부상 방지를 위해 기본 체조를 진행하고 워밍업을 진행합니다. 이후 20~30분가량 개인 기본기 훈련을 진행한 뒤 팀을 나눠 농구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Q. 어린이농구교실의 학생들은 취미로 농구를 하는 학생인가요?

대부분 학생들은 취미로 농구 하기 위해 오고 있습니다. 그중 체력이 좋거나 운동 능력이 뛰어난 친구에게는 전문체육 선수를 육성하는 학교와 연계해서 테스트를 받으러 갈 수 있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어린이농구교실을 통해 학교와 연계하여 활동하고 있는 친구들은 현재 5명 정도 됩니다.

Q. 어린이 농구 교실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학생들이 농구를 처음 접하게 되는 시기인 만큼 농구를 재미있게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농구를 하려는 학생들의 수요가 낮습니다. 지역사회에서 진행하는 농구 교실과 같은 곳에서 많은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학생들을 가르칠 때 가장 중요시하는 부분?

전문체육선수를 지도할 때와 마찬가지로 인성적인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농구라는 운동은 혼자 잘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팀을 위해 단합하고 배려하는 인성을 함양해야 합니다.

Q.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부산어린이농구교실이 진행되고 있는 부산광역시체육회관 체육관은 시설이 굉장히 좋습니다. 부산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니 사직동 부근의 학생들이 이외에도 부산의 다양한 지역 학생들이 이곳에 와서 마음껏 뛰어놀았으면 좋겠습니다.



스포츠를 통해 진정한 '나'를 찾다! 여성특화체육교실

글 _ 제3기 부산스포츠기자단 박윤선

여성들이 체육활동을 통해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여성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키며, 지속적인 스포츠 활동 참여와 건강증진 및 어울림의 장을 마련해주고자 여성특화체육교실이 진행되고 있다.



동래구체육회 2023 여성특화체육교실

종목 : 여성 풋살
기간 : 2023. 7. 19(수) ~ 10. 25(수)
운영시간 : 매주 수요일 10:00 ~ 12:00
장소 : 아이파크 풋볼 아카데미 동래점

각 자치구에서 주관하는 '여성특화체육교실'은 지난 6월 말에 접수를 받았으며, 7월부터 10월까지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개설된 종목은 살펴보면 파크골프(서구), 배구(동구·부산진구), 농구(연제구), 풋살(동래구·사상구·금정구) 등 구기 관련 프로그램이 가장 많은 걸 볼 수 있다. 이 밖에도 더운 여름을 맞아 물에서 진행되는 교실을 운영 중인 곳도 있다. 영도구는 패들보드 요가, 수영구는 SUP와 SUP 요가 프로그램, 북구는 수상스키와 웨이크보드 프로그램을 개설했다.

각 프로그램은 무료로 참여할 수 있는데, 동래구 풋살의 경우 모집인원이 초과되자, 사비를 들여서라도 여성특화체육교실에 참여하려는 의지를 보인다고 한다. 다른 구역 역시 인원이 마감되어 대기자가 많다고 한다.

동래구 풋살 프로그램 담당자인 남나라 지도자는 "여성특화체육교실은 작년 동래구에서는 운영되었으나, 여건과 지원이 부족해 폐강되었는데요. 하지만 올해 부산시에서 '여성특화체육교실' 지원사업이 시행되어 본격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었고, 현재 동래구 풋살 교실은 2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참가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구장이 아닌, 임대 구장을 사용하기에 모든 인원에게 무료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없다는 점과 모집인원을 증원할 수 없다는 아쉬움도 있지만 수업을 진행할수록 여성분들이 스포츠를 즐기는 모습을 볼 때면 뿌듯하고 보람을 느낍니다."라며 소감을 전했다.

제3기 부산스포츠기자단

금광진, 김도호, 박윤선, 박은지, 서미영, 이민철, 이예서, 임재순, 전하연, 최현우, 한정명, 허은영, 황병윤 (가나다 순)



Interview 손명숙(동래구·50대)

여성특화체육교실 참가자를 만나다!

Q. 어떤 경로로 '여성특화체육교실'을 알고 참여하게 되었나요?

A. 아들이 아이파크 풋볼 아카데미에서 축구 수업을 하는데, 우연히 여성들을 위한 축구 수업을 무료로 한다는 팸플릿을 보고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Q. 프로그램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A. 수요일마다 10시부터 12시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처음에는 간단한 기술을 배우고 미니 게임도 하면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Q. 프로그램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A. 끈기 있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나이에 상관없이, 어머님들도 열심히 하고 끝을 보기 때문에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또한 주부로 지내면서 저 자신이 '여자'라는 걸 잊을 때가 많았는데, 축구 연습을 하고 경기를 뛰다보니 내가 주부가 아니라 '한 여성, 한 사람 이구나'라는 걸 새삼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Q. 다음에도 프로그램이 있으면 참여하실 의사가 있으신가요?

A. 네, 직장을 다니지 않는 이상 똑같이 기회가 주어진다면, 무조건 참여하고 싶습니다.



고난도 기술 속 우아함을 담다

체조 gymnastics



Gymnastics

인간의 신체적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여 고난도 기술을 선보이는 '기계체조'와 미(美)적 움직임을 통해 우아함의 극치를 자아내는 '리듬체조'. 체조는 인간의 몸을 통해 한 편의 예술 작품을 펼치는 스포츠이기도 하다.

기계체조의 역사

기계체조(器械體操)는 기계를 사용하는 모든 체조를 칭하며, 근력, 지구력, 유연성, 민첩성, 평형감각 등을 이용해 기술을 수행해야 하는 종목이다.

체조는 18세기 독일의 교육자 구츠무츠(J.GutsMuths)가 만든 체조 교육이 그 시초다. 이후 독일의 체조 아버지라 불리는 프리드리히 얀(Friedrich Ludwig Jahn)이 나폴레옹 전쟁에서 패배한 조국 청년들의 정신과 신체를 단련하기 위해 구츠무츠의 체조 교육을 오늘날의 기계체조로 발전시켰다. 얀은 베를린 교외에서 처음으로 노천 체조장을 열어 경주·도약·투기·등반·턱걸이 등 인내력과 투쟁 정신을 형성할 수 있는 유희적인 운동을 가르쳤는데, 이를 통해 청소년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고 남성적인 젊은이를 양성



하는 데 목표를 두었다. 처음에는 자연의 장애물을 사용한 체조를 했으나, 나중에는 철봉·평행봉·목마 등의 기구를 사용하여 이 기계에 맞는 여러 운동 형태를 고안하였다.

경기로서의 체조가 선보이게 된 건 얀이 체조경기대회를 열었던 1814년이다. 이후 19세기에 국제체조연맹이 생겼으며, 이후 5년 뒤 그리스 올림픽대회에서 기계체조가 처음 선보이게 된다. 당시 체조는 철봉, 평행봉, 안마, 링 등 4가지 종목이었고, 남자만 출전 가능했다. 1952년 헬싱키 올림픽대회에 이르러서 남자 6종목(철봉, 평행봉, 안마, 도마, 링, 마루운동), 여자 4종목(평균대, 이단 평행봉, 도마, 마루운동)으로 규정되었다.

리듬체조의 역사

리본, 후프, 곤봉 등 손으로 다룰 수 있는 기구(수구)를 사용해 자연스럽고 부드러운 움직임을 선보이는 리듬체조는 원래 음악 교육의 수단 중 하나였다. 19세기 스웨덴의 교육자 페르 헨리크 링이 신체 움직임과 음악의 조화로운 결합에 중점을 둔 리듬체조 운동 시스템을 개발하였는데, 이는 리듬체조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게 되었다. 이후 20세기 초 헝가리 출신의 댄서이자 체조 선수에 밀 자크달크로즈(Emile Jaques-Dalcroze)가 체조에 무용과 음악



을 처음 접목하였으며, 유로리듬의 음악을 통해 움직임을 표현하고 동작을 극대화했다.

스포츠로서의 리듬체조 경기는 1940년 소련에서 처음으로 시작되었으며, 1964년 첫 세계선수권대회가 개최되었다. 이후 1984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대회부터 리듬체조 개인전이, 1996년 애틀랜타 올림픽대회에서 리듬체조 단체전이 각각 시작되었다.

참고자료 대한체육회(기계체조), 올림픽 공식 홈페이지(리듬체조)

화려한 기술의 절정, 기계체조 남자 : 6종목 - 마루운동, 안마, 링, 도마, 평행봉, 철봉 여자 : 4종목 - 도마, 이단평행봉, 평균대, 마루운동



안마 Pommel Horse

마의 모든 면을 활용하여 자세를 수행하는 안마 종목은 다리를 벌리거나 모은 상태의 다양한 원형 스윙, 한 다리 스윙 및 회전 유무에 관계없이 물구나 무서기를 통한 스윙 등이 허용된다. 안마 연기를 수행할 때는 반드시 스윙을 해야 하며, 스윙이 조금이라도 중단되면 안 된다.



링 Rings

2개의 줄과 지름 18cm 링이 연결된 링 종목은 나무 손잡이를 이용하여 흔들기, 버티기, 그리고 휘둘기 동작으로 이루어져 있다. 링 종목은 팔을 곧게 편 자세로 스윙과 힘 요소 사이의 전환을 기본으로 하고, 지정된 기술에서만 팔을 굽힐 수 있다. 버티기 시 손목, 어깨, 정확한 고관절의 각도가 중요하게 평가된다.



평행봉 Parallel Bar

평행봉은 마루면에서 200cm 높이에, 350cm 길이의 두 개의 봉을 가지고 연기를 수행한다. (넓이는 선수 개인에 맞게 조절할 수 있다.) 평행봉 양팔로 버티기를 통해 실행한 요소, 양팔을 걸친 상태로 실행한 요소, 매달려 실행한 요소, 내리기 요소로 연기가 구성되어 있으며, 다양한 기술을 연속적인 전환 형태로 수행해야 한다.



철봉 Horizontal Bar

철봉은 다양한 비행 동작 및 다이내믹한 동작을 선보이는 종목이다. 철봉 연기 수행은 정지 없이 흔들기를 중심으로 비틀기 그리고 비행 동작의 부드러운 연결로 구성해 역동적이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동작들은 다양한 손잡기 동작으로 기술의 연속적인 전환 형태로 변화를 주면서 연기를 수행해야 한다.



마루운동 Floor Exercise

마루운동은 12m×12m의 정사각형으로 된 탄성 마루 위에서 다양한 공중돌기, 힘, 균형, 유연성, 물구나무서기 등을 조합하여 연기를 수행해야 한다. 남자는 공중 돌기 중심의 난도 높은 곡예 기술 수행에 초점을 맞춘다면, 여자는 90초 내 음악에 맞춰 연기를 수행해야 하는 종합 예술적인 특징을 보인다.



도마 Vault

도마는 4~5초 짧은 시간 내에 고난도 기술을 수행해야 하는 종목으로 전력 질주하여 구름판을 밟고 손으로 도마대를 짚은 후, 공중에서 몸체의 두 축을 중심으로 회전(혹은 비틀기) 동작을 거쳐 정확하게 착지해야 한다. 도마 높이는 마루면으로부터 남자 135cm, 여자 125cm이며, 구름판의 경우 남자는 세로로, 여자는 가로로 놓는다.



이단평행봉 Uneven Bar

245cm의 높은 봉과 165cm의 낮은 봉으로 이루어진 이단평행봉은 오르기, 물구나무서기, 스윙, 씨클, 비행, 내리기 등의 기술로 구성되어 있다.



평균대 Balance Beam

평균대 높이 125cm, 길이 500cm, 폭 10cm로 이루어진 평균대 위에서 연기를 수행하는 종목이다. 평균대 기술로는 공중돌기와 같은 아크로요소와 점프 및 턴과 같은 댄스 요소 그리고 안무로 구성된다. 특히 움직임의 리듬 강도 및 속도에서의 변화를 효과적으로 연기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美)의 극치를 발산하다, 리듬체조 리듬체조는 후프, 볼, 곤봉, 리본, 줄 등 5개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자만 출전할 수 있다. 과거에는 올림픽대회 때마다 다섯 개 종목 중 4개를 결정해 경기를 펼쳤지만, 2011년 세계선수권대회 이후 국제체조연맹(FIG) 공식 성인대회에서 줄 종목은 진행되지 않고 있다.



후프 Hoop

후프는 몸을 쓸 수 있는 가동성과 유연성이 필요한 종목이다. 선수는 후프를 직접 통과하거나, 후프의 탄력을 이용해 튀기기 혹은 던지기 등의 묘기 같은 움직임을 선보인다.



볼 Ball

볼은 다이내믹한 동작보다는 유연하고 부드러운 동작을 보여주기 적합한 종목이다. 특히 공과 선수가 하나가 되어 흘러가는 느낌을 줘야 하며, 볼을 튀기거나 던지는 동작 외에도 몸 위에서 볼을 자연스럽게 굴리는 동작이 필요하다. 단, 공이 일정 시간 멈춰 있으면 감점이다.



곤봉 Club

곤봉은 수구 중 까다로운 종목에 꼽힌다. 곤봉을 던지거나 8자 혹은 풍차 모양, 작은 원 모양으로 돌리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곤봉 하나는 던지고, 다른 하나는 돌리는 등 두 개의 곤봉을 각자 다르게 다루는 동작도 필요하다. 또한 곤봉을 던져서 받는 정확한 타이밍과 함께 리듬감도 중요하다.



리본 Ribbon

리본은 리듬체조 중에서도 가장 변화무쌍한 표현력을 볼 수 있는 종목이다. 어떤 리본 색깔을 쓰고, 어떤 리듬에 맞춰 어떻게 리본을 흔들느냐에 따라 느낌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물결 모양, 나선 모양, 뱀 모양 등으로 흔들는 동작과 더불어 리본을 던지고 받을 때 다양한 모양이 나오도록 수행한다.

남자 리듬체조는 없나요?

남자 리듬체조도 있다. 마루운동에 수구를 결합한 일본식 리듬체조와 여자 리듬체조처럼 유연성이나 피트니스 난도를 수행하는 스페인식 리듬체조로 나뉜다. 남자 리듬체조는 세계선수권 대회도 꾸준히 열리고 있다. 다만, 국제체조연맹(FIG)에서 이 대회를 채택하지 않고 있어 어디까지나 비공식대회이며, 남자 리듬체조는 정식 종목으로도 채택되지 않아 올림픽대회에서는 볼 수 없다.

참고자료 대한체조협회 홈페이지, 올림픽 홈페이지, 네이버 블로그 이은경의 삼위일체

SPORTS

JOB

과학적 분석을 통해 데이터를 도출하다
스포츠 기록분석연구원

스포츠 경기의 모든 요소를 수치적 데이터로 기록하고 이를 분석하는 스포츠 기록분석연구원.
과거에는 주로 국가대표팀을 중심으로 경기 분석을 하였으나, 점차 다양한 종목의 프로팀으로
확대되며 스포츠 기록분석연구원이 주목받고 있다.

스포츠의 성과를 좌우하는 과학적 분석

2000년대 초, 미국 프로야구 최하위 팀이었던 오클랜드 아슬레틱스는 매 경기를 상세하게 기록하고, 철저한 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팀을 재구성하였는데, 경기 성적이 눈에 띄게 달라졌다고 한다. 오클랜드 아슬레틱스 팀이 구성한 머니볼* 이론은 지금까지도 많은 팀에서 활용하고 있으며, 과학적 분석을 통한 스포츠 팀 구성의 성공 사례로 언급되고 있다. 오클랜드 아슬레틱스 팀이 스포츠 기록분석을 통해 성장하게 된 실화를 바탕으로 영화 <머니볼>이 제작되기도 했는데, 상영 당시 많은 이들에게 주목받기도 했다. 이처럼 스포츠 선수와 팀의 성과를 과학적 자료와 데이터를 통해 분석하는 직업이 바로 스포츠 기록분석연구원이다.

스포츠 기록분석연구원은 다른 스포츠 분야의 직업군보다 역사가 짧지만, 스포츠 경기력을 평가함에 있어 기록분석이 필요한 만큼 주목받고 있는 직종으로 꼽힌다. 경기분석관과 유사한 업무를 하기에 혼동할 수 있는데, 경기분석관은 특정 구단에서 특정 종목에 대해서만 분석하며, 스포츠 기록분석연구원은 스포츠 전 종목에 대한 데이터를 기록 및 분석하는 차이점을 보인다.

세밀한 관찰자의 시선으로

스포츠 기록분석연구원은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 스포츠 선수와 팀의 경기내용 및 성과 등을 분석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이전 경기 내용을 보며 개인과 팀의 특성을 분석하고 공유하며, 감독은 이를 바탕으로 다음 경기 계획(상대 공략법 찾기 등)을 세울 수 있다. 또한 훈련 전 선수들과 해당 내용을 공유하고 이에 맞는 시뮬레이션 훈련을 진행하며, 훈련을 녹화해 선수들이 맡은 포지션을 충실히 수행하였는지 검토 및 분석하기도 한다.

경기를 분석하는 일이기에 스포츠 기록분석연구원은 긴 시간 동안 세밀하면서도 객관적으로 경기를 관찰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여러 스포츠 경기에서 상대 팀의 전력을 전문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공간 지각력도 요구되며, 과학적 데이터를 도출하는 과정을 즐기는 사람에게 적합하다. 더불어 감독, 운영 스태프 및 선수들에게 분석에 근거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므로 의사소통 능력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머니볼 몸값이 높은 선수의 명성에 의존하기 보다 철저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 저평가된 선수들로 승률을 높이는 경영 방식

→ 대한체육회에서는 **e진로지원센터**(<https://welfare.sports.or.kr/>)를 운영하고 있다. 선수들의 이직 및 취업을 위한 진로상담뿐만 아니라 진로교육, 맞춤 채용정보를 제공하는 등 스포츠 복지를 위해 힘쓰고 있다.



가을철 야외활동 시 조심해야 할
감염성 발열질환

쯔쯔가무시병 Scrub Typhus

쯔쯔가무시병은 급성 열성 질환 중 하나로 털진드기 유충에 물려 감염된 병을 일컫는다.
털진드기 유충이 주로 활동하는 시기가 가을인 만큼 쯔쯔가무시 증상과 예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쯔쯔가무시 증상

쯔쯔가무시는 진드기 유충에 물려 오리엔티아 쯔쯔가무시균에 감염되는 경우 발생하는데, 유충이 피를 빨아먹는 부위에 딱지가 동반한 궤양이 나타나는 특징을 보인다. 주로 농촌에 거주하거나 논과 밭일을 하는 사람, 또는 야외활동을 하는 사람에게서 발병하기 쉽다. 특히 나무가 우거진 공간에서 감염 확률이 큰데, 추석 전후를 기점으로 성묘 기간에 전국 각지에서 많이 발생하기도 한다.

잠복기는 6~21일까지 다양하지만, 보통 10~12일 정도이다. 잠복기가 지나면 발열, 발한, 두통, 결막충혈, 림프절 종대(비대)의 증상이 나타난다. 발열이 시작되고 1주일 정도 지나면 암적색의 반점상 구진이 몸통에서 나타나 사지로 퍼져나가다 수일 내에 사라진다. 감염자의 대부분은 피부에 특징적인 가피(딱지)가 생기며, 구토, 설사 등의 위장관계 증상과 근육통, 복통, 인후염이 동반될 수 있다.

쯔쯔가무시병에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가피가 생긴 경우,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1~2일 내에 증상이 빠르게 호전될 수 있다. 하지만 치료하지 않을 시 2주 동안 발열이 지속되며, 합병증으로 인한 뇌수막염, 난청, 이명이 동반될 수 있다.

쯔쯔가무시 예방법 및 유의사항

쯔쯔가무시병이 유행하는 시기나 지역에서 야외활동을 하는 경우, 진드기 유충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화학약품을 옷에

바르거나 노출된 피부에 진드기 방충제를 발라 감염을 예방하면 좋다.

야외에서 작업 시 기피제를 처리한 작업복과 토시를 착용하고 소매와 바지 끝을 단단히 여미고 장화와 같이 목이 긴 신발을 신는 것을 추천한다. 또한 작업이 끝나면 샤워하고 작업복을 세탁하여야 한다.

쯔쯔가무시병은 감염 초기에는 적절한 항생제 치료로 회복이 가능하지만 항원성이 다양하여 재감염될 가능성도 있다. 아직까지 백신으로 쯔쯔가무시를 예방할 수 없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쯔쯔가무시병의 주요 증상



스포츠강좌이용권 편

출처 _ 국민체육진흥공단
[백호랑 까치랑]



그거 어떻게 하는거야 호랭아?

백호예요

신청자 거주지역의 시,군,구청에 방문해서 서면으로 신청해도 되고

스포츠강좌이용권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하게 - 스포츠강좌를 선물하세요!

https://svoucher.kspo.or.kr 에서도 신청할 수 있어요.

1차 신청기간이 있고 2차로 추가모집도 하네

지역별, 대면/비대면으로 시설도 검색할 수 있죠.

아, 축구교실도 있다!

... 정말?

내가 하고싶은건 8.5만원보다 조금 비싼데...

그럼 그건 못들어?

금액에서 8.5만원을 제한 나머지만 내면 들을 수 있어요.

어, 그런거야? 좋다! 나 정말 듣고 싶은 거였거든!

안심하고 신청해보세요.

신청기간 후라도 각지자체별로 추가모집을 하거든요.

정말 괜찮은 사업이군...

하지만! 방금 새로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도 운동하고 싶다

바로 운동을 하고 싶어하는 장애인들의-

아,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도 있어.

엇?

매월 8.5만원을 연간 10개월간 지원하는데

신청자의 주민등록 관할 시,군,구청에서

신청자의 주민등록 관할 시,군,구청에서

https://dvoucher.kspo.or.kr/main.do 에서도 신청할 수 있지.

만19세~64세 장애인 본인이라면 지원이 가능해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봐~

지원 대상자 및 신청기간

그... 그래?

* (1차) 전국동시신청기간 : 매년 초 (1월경 홈페이지 안내)
* (2차) 지역별 추가신청 : 지자체별 신청현황에 따라 자율시행

마, 맞다! 운동 시설을 제공하고 싶은 사람들은 어떻게-

스포츠강좌 이용권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지~

스포츠 강좌이용권... 빈틈이 없군!

이렇게 운동이 고픈 사람들과

운동 시설을 제공하고 싶은 사람들이 모여요~

함께 건강해지는거야!

건강이란 것이

폭발한다

운동은 건강의 지름길!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에서 만나자구~

꿈을 현실로 만드는 실전 인생 법칙

「인생에서 8가지 일에만 집중하라」



저자 양창정, 왕샤오단 출판사 미디어숲

가짜 인생을 끝내라

이 책은 독자가 가짜 인생을 멈출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한다. 세상이 강요하는 가치가 아니라 자신에게 진정 의미 있는 성공과 행복을 찾는 방법을 알려준다. 누구에게나 인정받는 커리어를 쌓아가고 안정적인 삶을 꾸려가는데도 왜 점점 지치고 힘들어지는지, 바쁘게 살아가는데도 왜 내가 원하는 인생과는 자꾸만 멀어지는 느낌이 드는지, 꿈을 좇기 위해 애쓰지만 자꾸 헛걸음하는 기분이 드는지 그 이유와 해법을 말해준다.



삶의 방향을 잃었다면 집중해야 할 8가지를 정하라

저자는 20여 년의 경영자 코칭 경험과 14년 이상 강의 경험을 통해 수십만 명의 삶을 변화시켰다. '인생에서 집중해야 할 8가지 핵심 역량'에 관한 그의 노하우는 여러 분야의 수강생들에게 아낌없는 찬사를 받았다. 그는 우리가 열심히 일상을 살아가면서도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하려는 일이 너무 많기 때문이라고 강조한다. 또한 인생에서 집중해야 할 8가지를 정하고 실천한다면 기적 같은 변화를 경험할 것이라고 장담한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작정 살아서는 안 된다. 잘 계획된 삶을 살아야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저자가 이 책에서 소개하는 기법은 간단히 배울 수 있고 자신의 꿈과 잠재력, 심리적 장애, 사고의 오류 등을 찾아내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8가지 일을 선택해서 집중할 수 있도록 강력한 동기를 부여한다. 정해진 삶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내 인생의 방향을 찾아 꿈을 현실로 만들고 싶다면 이 책의 8가지 인생 설계 방법을 적용해 보자. 기적 같은 변화를 경험할 것이다.

성공으로 이끄는 5가지 질문에 답해 보자

Q1. 내가 하고 싶은 건 뭘까?

💡 어떤 어려움을 만나든, 어떤 난관에 부딪히든 자신에게 이 질문을 먼저 해 보자.

Q2.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을까?

💡 생각만 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Q3. 지금 이 일이 나에게 도움이 될까?

💡 지금 하는 일이 내가 원하는 목표 및 꿈과 일치하는지 살펴보자. 일치한다면 지속하는 게 맞지만, 그렇지 않으면 멈춰야 한다.

Q4. 나는 지금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 원하는 것만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때로는 희생도 필요하고 대가도 치를 수 있어야 한다.

Q5. 어떻게 지속할 수 있을까?

💡 꿈을 이루는 유일하면서도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끊임없이 노력하며 버텨내는 것'이다.

BSC SPORTS NEWS



부산광역시체육회, 부산체육고등학교 격려 방문

제104회 전국체육대회 앞둔 부산체고 선수단 선전 기원

부산광역시체육회는 지난 8월 24일(목) 제104회 전국체육대회를 앞두고 훈련에 매진하고 있는 학생 선수들을 격려하기 위해 부산체육고등학교를 방문하였다. 부산체육고등학교는 이번 전국체육대회에서 22개 종목에 학생 184명(남 132명, 여 52명), 감독 및 지도자 48명 등 총 232명이 참가한다.

이날 부산체육고등학교 전국체육대회 예상 전력에 대한 브리핑을 시작으로 세팍타크로, 근대5종, 복싱, 자전거, 수

영 등의 선수단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격려금 1,000만 원과 이온음료 1,000병을 전달하며 전국체육대회 선전을 당부했다.

제104회 전국체육대회는 오는 10월 13일(금)부터 19일(목)까지 7일간 전라남도 목포 일원에서 개최 예정이다. 이에 앞서 9월 19일(화) 부산광역시청 대강당에서 제104회 전국체육대회 부산대표선수단 결단식을 개최하여 다시 한번 부산선수단의 선전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2023년 부산씨름왕선발대회 개최

부산광역시 씨름동호인 200명 참가

부산광역시체육회는 지난 9월 9일(토) 민족 대명절 추석을 앞두고 부산지역 남·여 최고장사를 가리는 2023년 부산씨름왕선발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이번 부산씨름왕선발대회는 부산 16개 구·군을 대표하여 출전하는 대회로 남자 3개부(청년부, 중년부, 장년부), 여자 3개부(60kg 이하, 70kg 이하, 80kg 이하)에 약 200여 명이 참가하였으며, 개장 110년의 역사를 자

랑하는 우리나라 제1호 공설 해수욕장인 송도해수욕장에서 개최되어 의미를 더했다.

부산광역시체육회 장인화 회장은 “씨름의 가치를 계승 발전시키고 시민에게 사랑받는 여가 스포츠로 정착하기 위한 대회가 되길 바란다.”는 부탁과 함께 “부산광역시체육회는 전통종목 저변확대를 위해 적극적인 대회 개최 및 지원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구군체육회 소식



중구체육회

2023 주5일제 생활체육실천광장 가족캠프

중구체육회는 8월 26일(토)부터 27일(일)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가족 구성원들이 다 같이 즐길 수 있도록 경북 포항 일원에서 2023년 주5일제 생활체육실천광장을 운영하였다. 포항 스페이스워크, 시립미술관, 호미곶 ATV 체험 및 구룡포 일본인가옥거리 관람 등을 통해 막바지 여름 휴가를 가족들과 보내면서 참여자들의 높은 호응과 만족도를 이끌어 마무리하였다.



서구체육회

2023년 서구체육회 제3차 이사회

서구체육회는 8월 11일(금) 서구청 신관 중회의실에서 서구체육회장, 부회장, 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부산광역시 서구체육회 제3차 이사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총 1건의 보고사항과 5건의 안건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기타 토의 시간에는 서로 간의 의견을 자유롭게 나누는 등 서구체육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동구체육회

2023년 주5일제 실천광장 및 2023 청소년체련교실

동구체육회는 8월 19일(토) 동구 관내 가족 40명, 청소년 40명 총 80명이 참여한 가운데 다대포 해양레포츠센터에서 주5일제 실천광장 및 청소년체련교실을 운영하였다. 프로그램으로 SUP수상교육과 해양스포츠교육 등을 받았으며, 이후 서핑과 패들보트를 타고 가족 간의 화합과 친구들과의 행복한 추억을 만들며 안전하게 행사를 마무리하였다.



영도구체육회

2023년 어린이체능·청소년체련 캠프 운영

여름방학을 맞아 8월 4일(금) 영도마린어드벤처파크에서 영도구에 거주하는 어린이(4~6학년)와 청소년(중·고등학생) 65명이 참여하여 해양레저(래프팅, SUP, 바다수영장, 부산항제트보트)를 체험하였다. 이번 캠프를 통하여 학업과 무더위에 지친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일상을 벗어나 여가를 즐기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모험심과 협동심을 배양하는 계기가 되었다.



부산진구체육회

양정 라이온스 공원 생활건강체조 생활체육교실 운영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여름, 태양보다 더 뜨거운 열정으로 뭉친 사람들을 양정 라이온스 공원에서 만나볼 수 있다. 매주 평일 오전 7시부터 8시까지 진행되는 생활체육교실(11월까지 진행)은 기초적인 환경을 제공하여 구민들의 건강증진 및 건전한 여가 활동 조성 기여를 목적으로 한다. 생활체육교실은 무료로 진행하기에 참가를 희망한다면 자유롭게 참여하면 된다.



동래구체육회

동래구국민체육센터 수탁 운영

동래구체육회에서는 동래구국민체육센터 위·수탁 계약 체결식을 진행하고 현재 수탁 운영을 시작했다. 앞으로도 지역주민의 시설 활용에 대한 공공성·형평성을 확보해 구민 편익에 중점을 두며, 또한 공공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연령대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동래구국민체육센터가 지역 커뮤니티 장소로 활성화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



남구체육회

남구체육회-부산미래IFC검진센터 업무 협약식

남구체육회는 8월 14일(월) 미래IFC검진센터와 활기찬 남구를 만들기 위한 상호협력 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을 통해 미래IFC검진센터에서 제공되는 최상의 의료서비스와 할인 혜택으로 1만여 명 이상의 남구체육회 생활체육 동호인과 그 가족들이 더욱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영위하는 데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북구체육회

2023년 제78주년 광복기념북구축구대회

북구체육회는 8월 27일(일) 일요일 북구 화명생태공원 화명운동장에서 제78주년 광복기념북구축구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대회에는 10개 팀, 선수 약 250여 명이 참가하였으며 선수단들은 튼튼이 다져온 기량을 발휘하고 친선과 우의를 다지며 화합의 장으로 마무리하였다.



해운대구체육회

초록공원 탁구대 기증식

8월 4일(금) 해운대구 반여3동 초록공원 내 초록관에서 해운대구체육회와 탁구동호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탁구대 기증식이 진행되었다. 탁구대 기증을 통해 해운대구민들에게 생활체육프로그램 활성화와 양질의 체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다.



사하구체육회

2023년 주5일제 생활체육 실천광장 가족 여름해양캠프 및 2023년 어린이체능교실

사하구체육회는 8월 12일(토)과 8월 14일(월) 다대포해양레포츠센터에서 2023년 주5일제 생활체육 실천광장 가족 여름해양캠프 및 2023년 어린이체능교실을 각각 진행하였다. 사하구 거주 3인 이상 가족 50명을 대상으로 여름해양캠프를, 3학년 이상 40명을 대상으로 어린이체능교실을 개최하여 패들보드, 서핑 그리고 동력을 이용한 놀이기구를 체험하였다.



금정구체육회

2023년 하반기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완료

금정구체육회는 2023년 하반기 생활체육교실, 신나는 주말체육학교 밖 교실, 여성특화체육교실 수강생을 각각 모집하였다. 수강생들에게 보다 폭넓고 재미있는 운동을 제공하기 위해 다이어트태권도, 요가, 농구, 클라이밍, 풋살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로 구성하였으며, 금정구민들의 큰 호응과 함께 성공적으로 모집이 마무리 되었다.



강서구체육회

2023년 생활체육교실 강서구민 가족캠프

강서구체육회에서 주관한 2023년 생활체육교실 강서구민 가족캠프 행사를 8월 8일(화) 김해 롯데워터파크에서 진행하였다. 여름방학을 이용한 가족(80여 명)과 함께하는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가족의 소중함과 건전한 사회생활 기반 조성은 물론 캠프 참여로 가족과 이웃 상호 소통 기회를 제공하며 강서구민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이웃사랑 실천 기반을 조성하였다.



연제구체육회

2023년 주5일제 생활체육실천광장 해양스포츠체험

연제구체육회는 7월 29일(토) 연제구민 11가족(총 47명)이 참가한 가운데 다대포해양스포츠 아카데미센터에서 2023년 주5일제 생활체육실천광장(가족캠프) 해양스포츠체험을 개최하였다. 다대포해수욕장에서 패들보드, 서핑, 제트스키를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하여 체험하고 즐길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특별한 시간이 되었다.



수영구체육회

2023년 어린이체능·청소년체력교실 개최

수영구체육회는 8월 15일(화) 2023년 어린이체능·청소년체력교실을 개최하였다. 이 행사에는 수영구 및 구래군 초·중학생 총 60여 명이 참여하였으며 광안리해수욕장에서 해양스포츠 체험을 진행하였다. SUP(스탠드업 패들보드), 서핑, 생존수영 등 평소에 접해보지 못했던 다양한 스포츠활동 체험을 통해 학생들은 서로 소통하고, 추억을 쌓는 즐거운 시간이 되었다.



사상구체육회

2023 전국 사상 에코 마라톤 개최를 위한 참가자 접수

사상구체육회는 11월 12일(일) 삼락생태공원에서 개최 예정인 마라톤 대회 참가 접수를 오는 10월 30일(월)까지 선착순(5,000명)으로 받고 있다. 종목은 15km·10km 로드레이스, 5km 건강달리기 3가지가 있으며, 참가자 기념품 제공 및 종목별 시상할 예정이다. 이번 대회는 친환경 도시로 거듭나고 있는 사상의 이미지를 널리 알리는 데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기장군체육회

주5일제 생활체육실천광장 가족캠프

기장군체육회는 여름을 맞이하여 8월 19일(토) 일광해수욕장에서 주5일제 생활체육실천광장 가족캠프를 주최하였다. 오전, 오후로 나누어 진행하였으며, 총 80명이 참가해 해양스포츠(바나나보트, 디스코팡팡, 익스트림보트)를 즐기는 등 가족캠프를 통해 생활의 활력소를 갖는 시간이 되었다.





부산국민체육센터

여름방학 특별 프로그램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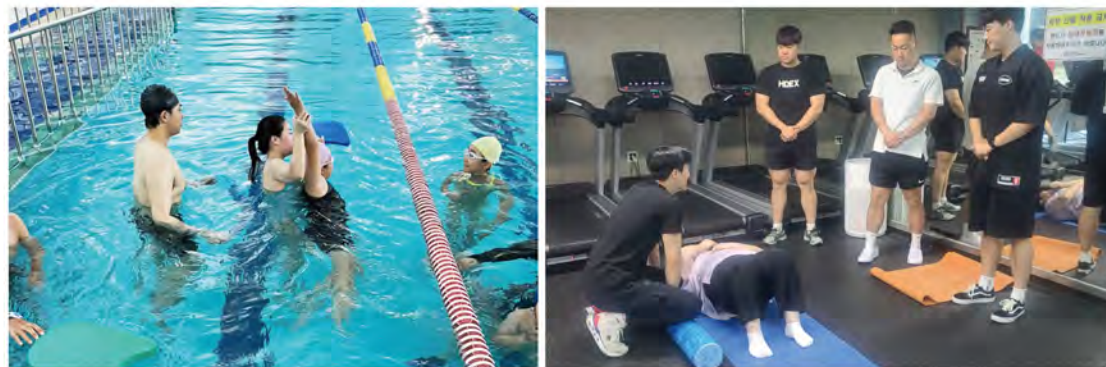


부산국민체육센터는 여름방학을 맞이한 관내 초등학생들의 취미 활동과 자칫 소홀하기 쉬운 건강을 챙기기 위해 8월 1일(화)부터 31일(목)까지 여름방학 특별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관내 초등학생 122명을 대상으로 수영, 헬스, 배드민턴, 농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부산국민체육센터는 여름방학 기간에 관내 학생들의 건

강증진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여러 시간대로 편성하여 여러 학생들에게 진취성과 자신감을 심어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앞으로도 관내 어린이 및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생활체육을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북구국민체육센터

현장실습교육 제공



북구국민체육센터는 생활체육지도자 연수생을 대상으로 현장실습교육을 진행 중이다. 이번 현장실습교육은 8월 18일(금)부터 10월 6일(금)까지 부경대 생활체육지도자 연수생(보디빌딩, 수영)이 참여하고 있다. 북구국민

체육센터는 현장실습을 통해 연수생들의 실무 경험을 갖춘 경쟁력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은 물론 맞춤형 전문 실습과정 개발 및 지도로 공공체육시설의 전문성을 한층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서구국민체육센터

2023년 민방위 훈련 실시



8월 23일(수) 오후 2시부터 민방위 훈련이 전국적으로 실시됐다. 강서구국민체육센터는 지역주민들과 함께 공습경보에 맞춰 지하 대피공간으로 대피하는 훈련을 하였으며, 대피소로 이동하여 심정지 환자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심폐소생술 교육도 받았다. 공습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피와 대응 요령을 숙달하며 훈련을 마무리하였다.

영도국민체육센터

헬스장 노후기구 교체



영도국민체육센터는 7월 10일(월)과 8월 15일(화)에 헬스장 이용회원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운동환경 조성을 위한 노후 헬스 기구를 교체하였다. 이번 교체된 헬스기구는 러닝머신, 헬스쿼트, 천국의 계단, 체스터시티프레스, 파워레크 등이다.

기존 헬스기구는 개관 당시 구입·설치된 기구로 노후 및 잦은 고장으로 이용회원들에게 불편을 초래하여 이를 개선하였으며, 헬스장 기구 교체로 이용회원들의 만족도가 대폭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실내빙상장

지도자 연수 실습 진행



8월 22일(화)부터 25일(금)까지 4일간 동아대학교 경기 지도자 연수원과 경남대학교 스포츠지도사 연수원의 협 조 요청으로 부산실내빙상장에서 지도자 연수 실습을 진 행하였다.

2급 생활스포츠지도자 자격증과 2급 전문스포츠지도자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쇼트트랙 1명, 피겨 4명 등 총 5명의 실습생들은 강사들의 도움을 받아 수강생들을 지도 및 보조하는 연수 과정을 거치며 총 24시간의 실 습을 마쳤다. 실습생들은 연수를 통해 생활체육지도자 와 전문체육지도자의 역량을 키워갈 수 있게 되었다.

부산종합실내테니스장

2023년 대한테니스협회 i-LEAGUE 진행



8월 27일(일) 부산종합실내테니스장에서 2023년 대한테니스협회 유·청소년리그(i-리그)가 진행되었다. 부산에서는 올해 처음 진행되는 대한테니스협회 사업 으로 대한테니스협회에서 주최하여 부산광역시 유·청

소년들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진행되고 있다. 매달 1회씩 총 7회 진행되며 참가자들의 호응이 좋은 만큼 앞으로 유·청소년들의 배드민턴 생활체육 활성화가 기 대된다.

부산광역시거점스포츠클럽



2023 부산광역시협회장배 남·여 펜싱선수권대회 출전



8월 26일(토)부터 27일(일)까지 아 시아드주경기장내 펜싱경기장에서 2023 부산광역시협회장배 남·여 펜 싱선수권대회가 개최된 가운데 부산 광역시거점스포츠클럽 펜싱 에베, 플 러레 선수들이 참가하여 우수한 성 적을 거두었다. 앞으로 거점스포츠클 럽 펜싱을 이끌어 나갈 초등부 선수 들에게 많은 기대와 응원 바란다.

출전 결과	에베	플러레
남초부(고)	3위 홍예준	1위 전주현, 2위 이태인, 3위 권태근, 이한솔
여초부(고)	1위 안효주, 3위 장은채, 김지연	2위 전주홍
남초부(저)	1위 문정현	1위 이주한, 2위 박준희, 3위 박리우, 김서진
여초부(저)	-	1위 윤지유, 2위 이채연

부산광역시영도구스포츠클럽



실내골프연습장 노후 환경 개선 공사



부산광역시영도구스포츠클럽에서는 7월 22일(토)부터 23일(일)까지 실내골프 연습장 환경 개선 공사를 진행하였다. 지난 2009년 12월 개장한 골프연습장 은 8타석 실내연습장으로 수동 티업기 가 설치되어 연습 후 공을 직접 수거함에 따라 안전상의 문제점이 있었다. 이번 개 선 공사로 골프공 자동공급장치 및 경사 로 설치를 통하여 이용 회원들의 불편함 과 안전사고의 위험성을 줄이는 등 이용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케이블카 그 이상의 즐거움!

송도해상케이블카 부산에어크루즈

볼수록 새로운 바다! 갈수록 색다른 재미! 탈수록 즐거운 송도해상케이블카
하늘과 바다를 가로지르는 감동, 생생한 테마와 즐거움을 경험하세요!



스카이하버 전망대



소원의 용



모멘트 캡슐



VR 스카이스윙



케이블카 뮤지엄



다이노 어드벤처



파티드 (피규어) 갤러리



어린이왕자

문화와 즐거움이 가득한 오션 테마파크!

송도해상케이블카 부산에어크루즈
공통과 사진찍고, 소원도 빌어보고, 짜릿한 VR체험까지!
즐겁고 색다른 문화 콘텐츠가 눈 앞에 펼쳐집니다

문의 051) 247-9900

대한민국 건설의 중심

바로 그곳에 (주)일동이 있습니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변치 않는 가치와 자부심으로
지역과 함께하는 대한민국의
건설리더가 되겠습니다

주식회사 일동

일동토건(주)

미라주건설(주)

태하건설(주)



시민공원 일동미라주 시티



부산항 일동미라주 더오션



대구 테크노폴리스 일동미라주



신정유 일동미라주



부산 연산동 일동미라주



진주 강남동 일동미라주



김해 관동동 일동미라주 더스타



부산 영도 일동미라주



울산온양 일동미라주



울산 해곡중산자구 U-스타시티 일동미라주 더스타

2007년
대통령 표창 수상

2010년
국무총리 표창 수상

2020년
부산문화대상
경영부문 수상

부산광역시체육회와 함께하는 부산체육사랑카드

부산시체육회 지정 체육시설 10%, 월 최대 1만5천원 할인!
스포츠, 의료, 학원 등 생활 곳곳에서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연회비 국내전용(BC) 1만원
(기본 연회비 없음, 제휴 연회비 1만원)

상품서비스 및 이용 안내

월간 통합 할인 한도

전월실적	월간통합 할인한도
40만원 이상	10,000원
80만원 이상	20,000원
120만원 이상	40,000원

구분	상세내용	제공조건	할인율
부산시 체육시설	부산광역시 체육회 지정 공공 / 민간 체육시설	월 할인한도 최대 1만5천원	10%
스포츠	골프 / 스포츠 / 레저 업종	월2회 / 월 할인한도 최대 1만원	10%
의료	병의원 / 약국 업종	월2회 / 월 할인한도 최대 1만원	10%
학원	학원 업종	월2회 / 월 할인한도 최대 5천원	5%
건강식품	홍삼 / 인삼 / 건강식품 업종	월2회 / 월 할인한도 최대 5천원	5%
생활	간편결제 / CU / GS25 / 스타벅스	월2회 / 월 할인한도 최대 5천원	5%

스포츠연계업종 결제 시 최대 1만 2천원 할인이벤트

이벤트 기간 2023년 8월 1일 ~ 2023년 11월 30일

이벤트 대상 BNK부산은행 개인 신용 및 체크카드(기업/선불/기프트카드제외)

이벤트 내용 #Mytag하고 부산지역 스포츠연계업종(3종) 이용 시 결제일 할인 제공

· 이벤트 이용방법 : 부산은행 모바일뱅킹 > 전체메뉴 > 카드 > '#마이태그'

혜택 1 부산체육회 지정 체육시설에서 건당 2만원 이상 결제 시 **5천원 결제일 할인**
(기간 중 1인 1회)

혜택 2 부산시소재 스포츠업종에서 건당 5만원 이상 결제 시 **2천원 결제일 할인**
(기간 중 1인 1회)

혜택 3 부산시소재 의료업종에서 건당 10만원 이상 결제 시 **5천원 결제일 할인**
(기간 중 1인 1회)

※ 상기 혜택은 마이태그 후 대상시설 및 대상업종에서 결제 시 할인이 제공됩니다.

※ 이벤트 관련 세부내용(혜택 제공 업종 및 기준 등)은 혜택별 마이태그 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각 혜택별 할인제공 대상업종 및 업종기준(BC카드 가맹점 등록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부산체육회 지정 체육시설 : 부산광역시 체육회가 인정한 공공/민간 체육시설을 의미하며, 해당 시설은 부산시 체육회 홈페이지(www.sports.busan.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스포츠업종 : 부산지역소재 골프용품, 스포츠레저용품, 골프경기장,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 스키장, 볼링장, 테니스장, 수영장, 헬스클럽, 당구장, 종합레저타운, 기타레저업, 레저업소(회원제업종)

· 의료업종 : 부산지역소재 종합병원, 병원, 한방병원, 치과병원, 의원, 한의원, 치과 의원, 제약회사, 약국, 한약방업종

· BC카드에 등록된 가맹점 주소 및 업종이 할인 대상이 아닌 경우 서비스 적용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부산시 체육시설은 부산광역시 체육회가 인정한 체육시설 외의 가맹점에서 이용 시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스포츠 및 의료업종 할인은 오프라인 가맹점 결제 시 혜택이 적용됩니다.

· 앱이나 홈페이지 등 온라인 가맹점 이용 시 혜택 미적용

· 타할인 상품서비스등과 중복복용 가능합니다.

· 이벤트별 가맹점별 결제 시 할인이 제공됩니다.
(결제금액 할인제공은 불가하며, 포인트 등으로 대상금액미만 결제 시 혜택 제공 제외)

· 마이태그 후 결제 시에만 결제일 할인이 제공됩니다.

· 기업/선불/기프트카드 및 간편결제이용 시 혜택 적용 제외됩니다. 단, 간편결제 중 삼성페이, 엘지페이는 이용 가능

· 일부 이벤트는 선착순 이벤트로 조기 마감 될 수 있습니다.

· 태그 후 최초 결제 건부터 혜택이 적용됩니다.

· 매출취소 시 제공된 혜택은 취소되며, 매출취소 시 취소가 정상적으로 접수되어야 혜택이 복원되며 혜택이 복원된 후 결제하셔야 다시 혜택이 적용됩니다.

· 가짜카드 소지/회원의 경우, 반드시 본인인증이 혜택을 태그한 경우에만 적용되며, 가짜카드 소지/회원의 태그 시에는 적용 불가합니다.

· 본 이벤트는 당사 또는 제휴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 또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

※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설명서와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용카드 발급이 부정당한 경우(연체금 보유, 신용점수 등 낮음)카드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카드이용대금과 이에 수반되는 모든 수수료를 지정된 대금 결제일에 상환합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평점 하락 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정기간 원리금을 연체할 경우, 모든 원리금을 본체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금융소비자는 금융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해당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듣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연체이자율 : 회원별, 이용상품별 약정금리+최대 3%p, 법정최고금리(20%) 이내

(단, 연체발생 시점에 약정 금리가 없는 경우는 아래와 같이 적용합니다.)

- 일시불 거래연체 시 : 거래발생 시점의 최소기간(2개월) 유이자 할부금리

- 무이자 할부 거래연체 시 : 거래발생 시점의 동일한 할부 계약기간의 유이자 할부금리

- 그외의 경우 : 약정금리는 상환상 상사법정이율과 상호금융거래자금 대출금리* 중 높은 금리 적용

* 한국은행에서 매월 발표하는 가장 최근의 비은행 금융기관 가중평균 대출금리(신규대출 기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은행 홈페이지(www.busanbank.co.kr) 또는 부산은행 고객센터(1588-62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역 전문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스포츠과학지원 서비스

부산 스포츠과학센터는 국가대표 선수에게 한정되었던 스포츠과학지원 시스템을 적용하여 부산지역 전문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분석을 통한 개인 맞춤형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부산광역시 선수들의
포를 향한 도전!

부산스포츠과학센터가
함께 하겠습니다.



체력측정 및 분석

- **기초체력**
신체조성 및 기초체력측정
- **전문체력**
운동부하검사(호흡가스 분석)
젖산분석, 등속성 근관절 기능
무산소성 운동능력 평가

생체역학측정 및 분석

- 영상분석(자세분석/전술 및 기술 특성) 및 족저압분석
- 근전도를 통한 근육동원 패턴 분석

개인 맞춤형 운동처방

- 선수 데이터관리 시스템 운영
- 체력수준 진단 및 개인별 운동처방 제공
- 개인 맞춤형 훈련 프로그램 제공

스포츠과학교실

- 스포츠과학 이론의 이해도 제고 및 현장적용 교육
- 스포츠윤리, 도핑, 부상예방 및 진로 교육
- 스포츠 영양 교육

스포츠심리지원

- 심리프로파일 분석, 심리훈련 및 상담

찾아가는 현장밀착지원

- 체력강화 및 운동기술 전문가 현장지원
- 경기력 향상을 위한 심리, 정신력 강화 프로그램 제공
- 훈련영상 촬영 및 종목별 필드레스트 제공

스포츠헬스케어센터 운영

- 부상예방·회복 및 경기력 향상 훈련 프로그램 제공
- 전문 트레이너와 1:1 훈련 진행

NO 페이퍼 ON 스마트

“종이는 줄이고, 생활은 스마트하게”

도시가스 고지서, 카톡으로 간편하게!
지구를 살리는 스마트한 변화의 시작입니다.



지구를 살리는 **톡톡**한 생활

kakao TALK 한번만 가입하시면 별도의 로그인 없이 사용 가능!

카카오톡 친구 검색창에
부산도시가스 검색

부산도시가스
도시가스 특 가입하기

비대면으로 편리한 셀프서비스
조회/납부/이사방문신청

QR코드로 사용하기

☑ 스마트폰 카메라 또는 QR코드 스캐너로 비춰주세요

☑ 가입/관리 클릭



이사 후 도시가스 사용계약도 **셀프로 스마트하게!!**

1988

2002

2030

WORLD EXPO BUSAN, KOREA

프랑스, 미국, 캐나다, 일본, 독일, 이탈리아!
세계 3대 행사인 올림픽, 월드컵, 세계박람회를 모두 치른 국가입니다.

이제 대한민국 차례입니다. 부산이 곧 자부심이 됩니다.

BNK 부산은행이 힘차게 응원합니다!

지역과 함께하는 든든한 동반자

BNK 부산은행